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22년 6월 12일(주일) 제1397호



사진은 지난 2017년 카운트다운

대학청년부 예배&선교 컨퍼런스 카운트다운 '킹덤 파이오니어' (Kingdom Pioneer)

6월 30일~7월 2일 서빙고온누리교회 본당, 7월 3일 장충체육관
김승수 목사, 이인호 목사, 유기성 목사, 주누가 선교사, 이재훈 목사 설교

2022 대학청년부 예배&선교 컨퍼런스 카운트다운(이하 카운트다운 '킹덤 파이오니어')이 막 오른다. '킹덤 파이오니어(Kingdom Pioneer)'를 주제로 6월 30일(목)부터 7월 3일(일)까지 이어진다. 6월 30일부터 7월 2일까지는 오후 7시 30분 서빙고온누리교회 본당에서, 7월 3일에는 오후 1시 30분 장충체육관에

서 집회가 열린다.

카운트다운 '킹덤 파이오니어'는 이 시대 청년들이 예배의 회복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선교명령을 마음에 되새기는 축복의 장(場)이다. 올해 카운트다운 '킹덤 파이오니어'에서는 6월 30일(목) 김승수 목사(대학청년본부장) '성령을 받으라', 7월 1일(금) 이인호 목사

(더사랑의교회) '예배를 회복하라', 2일(토) 주누가 선교사(GO선교회) '열방을 품으라', 3일(일) 유기성 목사(선한목자교회) '예수님만 바라보라', 이재훈 담임목사 '킹덤 파이오니어(Kingdom Pioneer)'를 주제로 설교한다.

카운트다운 '킹덤 파이오니어'에 대한 관심과 참여 열기가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벌써

청년 2,300여 명이 참가 신청을 했다. 카운트다운 '킹덤 파이오니어'에 참가를 원하는 청년들은 대학청년부 각 공동체 전자주보나 온누리교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 땅의 예배 회복과 선교의 부흥을 소망하는 청년이라면 누구든지 함께할 수 있다. 4,500명 선착순 모집한다. 회비는 없다.

문의: 02-570-7523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하나님, 돈 그리고 나' 독서토론회

6월 13일~7월 11일 매주 월 오후 8시

사회선교본부 '경제정의팀'에서 돈에 대한 영적 의미를 밝히는 프로젝트 '하나님, 돈 그리고 나' 독서토론회를 개최한다. 6월 13일부터 7월 11일까지 5주 동안 매주 월요일 오후 8시 서빙고온누리교회 시온홀(지하 2층)에서 열린다.

이번 독서토론회는 돈에 대한 문제가 영적인 문제임을 깨닫고, 돈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정립, 신앙관에 기초한 재정, 채무, 투자 등 크리스천의 돈에 관한 영적인 의미를 밝히는 시간이다. 독서토론회 신청은 온누리교회 성도라면 누구나 할 수 있다. 선착순 100명, 회비는 5천 원이다(교재 포함).

문의: 02-3215-3434, 3436

마리아행전 참가자 6월 12일까지 모집

각 캠퍼스 로비 접수데스크에서 선착순

2022 마리아행전 '하나님 나라' 참가자 모집을 6월 12일(일)까지 한다. 참가를 원하는 성도들은 6월 11일(토)과 12일(주일) 국내 온누리교회 모든 캠퍼스 로비에 설치되는 접수데스크에서 신청하면 된다. 선착순 현장접수만 할 수 있다. 온라인, 전화, 행사 당일 등록은 받지 않는다. 회비는 1만 원.

2022 마리아행전 '하나님 나라'는 오는 6월 22일(수)부터 24일(금)까지 온누리교회 국내 10개 캠퍼스에서 진행된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집회가 이어진다.

6월 22일(수)과 23일(목)에는 서빙고온누리교회 집회실황을 각 캠퍼스 본당으로 송출한다. 6월 24일(금)에는 서빙고온누리교회 본당에서 마리아행전 참가자들이 다 함께 모여 연합기도회를 개최한다. 6월 22일 이규현 목사(수영로교회), 23일 정근두 목사(에스라성경대학원대학교 총장), 24일 이재훈 담임목사가 설교한다.

문의: 02-3215-3667, 3201

각 캠퍼스 목회행정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2022 차세대 어드벤처

예수님의 이야기: 세상의 소금과 빛

2022 차세대 어드벤처가 '예수님 이야기: 세상의 소금과 빛' (마 5:13-14)을 주제로 시작된다. 예수님의꿈이아이(영유아부, 유치부)와 꿈이 자라는땅(유년부) 7월 초부터 8월 초까지 온누리교회, 꿈이 자라는땅(초등부)과 파워웨이브(중고등부)는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외부에서 차세대 어드벤처가 진행된다.

올해 차세대 어드벤처에서는 예수님의 사역하는 모습을 살펴 보면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배운다. 지난 6월 4일(토)에는 2022 차세대 어드벤처 준비를 위한 교사 강습회가 있었다. 노희태 목사(차세대사역본부 본부장)의 주제 강의와 각 영역 담당교역자들이 교재 강의를 했다. 교사 강습회에는 교사와 학부모 520여 명이 참석했다.

맛있는 말씀 해설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시 127:2)

예배 시간에 졸거나 수업 시간에 조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의 졸음을 성경에서 정당화시켜준다고 주장하는 말씀이 있다.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라는 구절이다. 원문은 시편 127편 1~2절 말씀이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시 127:1~2).

우스갯소리로 목사님들 또한 이 구절을 가지고 불면증에 걸렸거나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데 성도님께 잠을 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말씀하는 경우를 가끔 보기도 한다.

그런데 이 말씀은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

는 사람에게 잠을 준다는 의미일까? 물론 이 구절의 의미를 떠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이들 중에 잠을 자지 못해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잠을 청하는 기도를 했다면 그 기도가 응답 되지 않을 이유가 없다. 하나님이 축복으로 잠을 주실 수도 있다. 그러나 오늘은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라는 말씀을 그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 구절은 시편 127편 1~2절 전체를 문맥으로 읽을 때 정확하게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다.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는 내용은 1~2절 말씀의 결론으로 제시한 내용이다. 그래서 접속사 ‘그러므로’가 있다. 앞에 있는 내용을 먼저 설명하고, 그 이유로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시편 127편 1절과 2절a(상반절) 내용이 무엇인가? 그것은 한 집을 세우는 데 하나님이 도

와주시지 않으면 그 집을 세울 수 없다는 내용이다. 이뿐만 아니라 성을 지키는 파수꾼이 아무리 열심히 지켜도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그가 깨어있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의미다. 그래서 2절을 보면 우리가 집을 세우고, 성을 지키기 위해서 혹은 생계를 유지하고, 큰일을 하기 위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고 늦게까지 수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생계를 유지하는 게 쉽지 않다고 말한다. 1~2절을 종합해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공동체로서의 집을 짓는 것도, 성을 지키는 것도, 먹고 살기 위해 열심히 아침과 저녁 늦게까지 일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도와주셔야만 복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 내용의 결말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내용이 나온다.

다른 버전의 성경(표준새번역)을 읽으면 그 뜻이 더욱 분명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

는 사람의 수고가 헛되며, 주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된 일이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것, 먹고 살려고 애써 수고하는 모든 일이 헛된 일이다. 주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에게 그는 그가 자는 동안에도 복을 내리신다.”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는 말씀의 뜻은 단순하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잠을 준다는 의미가 아니다. 이른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늦은 시간까지 일하고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복이 임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그는 자는 동안에도 복을 내려주신다는 의미다.



오은규 목사
(성동광진공동체)

생명의 삶 QT 프리뷰 (preview)

죽음을 각오한 용기, 역전의 하나님



6월 13일부터 19일까지
에스더 2:1 ~7:10

묵상 포인트
1: 에스더는 ‘별’이란 뜻의 페르시아어에서 유래한 이름이다. 하나님은 페르시아에 포로로 잡혀간 백성을 잊지 않고 돌보신다. 에스더는 진멸될 위기에 놓인 유다인을 구할 별과 같은 존재로 하나님이 사 용하시는 인물이다.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에스더서를 묵상해 보자.

와스디를 폐위시킨 후 왕은 새로운 왕후를 뽑는다. 아름다운 처녀 에스더도 왕후 후보로 왕궁에 이끌려 간다. 에스더는 궁녀들을 관리하는 내시의 ‘은혜’ (히, 헤세드)를 받는데, 이는 하나님이 배후에서 은혜로 역사하고 계심을 보여 준다. 에스더는 왕의 사랑을 받고 와스디를 대신해 왕후가 된다. 모르드개는 에스더를 양녀처럼 키워 준 사촌 오빠다. 궁전 문의 관리로 일하던 그가 왕을 죽이려는 모의를 듣고 에스더에게 알린다. 에스더는 모르드개의 이름으로 왕에게 알리고, 역적모의한 자들은 나무에 달려 죽는다. 이 일은 궁중 일기에 기록되고 지나가는데 후일 모르드개의 운명을 바꾸는 중요한 사건이 된다.

묵상 포인트 2: 부림절은 하만이 유다인을 몰살하기 위해 ‘제비를 뽑아’ 날을 정한 것과

관련된다. 하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아말렉 족속이며, 아각(아말렉 왕을 통칭하는 말)의 후손이다. 모르드개와 하만의 갈등은 유다 민족과 아말렉 민족 사이에 오래된 갈등의 발화이기도 하다. 하만을 통해 한 인간의 오만함과 하나님의 백성을 말살하려는 세력의 악함을 묵상하고 경계하자.

아하수어로 왕은 하만의 지위를 높이고 그 앞에 무릎 꿇어 절하라고 명령한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모르드개는 절하지 않는다. 하만은 모르드개가 유대인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유대인을 모두 죽이기로 결심한다. 하만과 모르드개의 갈등이 민족 갈등으로 확대된다. 하만은 왕을 설득해 제비를 뽑아 얻은 아달월(유대력 열두 번째 달) 13일에 유대인을 죽이라는 조서를 전국에 보낸다. 위기에 처한 유대인과 모르드개가 금식하며 부르짖는다. 왕에게 나아가려면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것이 페르시아 왕궁의 법도다. 에스더가 머뭇거리자 모르드개가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며 강하게 도전한다. 이에 에스더는 수산성의 유대인들과 더불어 3일 밤낮 금식하고 죽기를 각오하며 왕 앞에 나아간다. 왕의 호의를 입은 에스더는 자신이 베푼 잔치에 하만과 함께 와 달라고 두 번이나 요청한다. 에스더가 유대인을 구하기 위해 움직이는 동안 하만은 모르드개를 죽이려한다.

묵상 포인트 3: 하나님은 뜻밖의 방법으로 상황을 역전시키신다. 왕을 구한 모르드개의 공로를 정확한 타이밍에 드러내시고, 울면서 금식하는 유대인에게 기이한 방법으로 응답

해 주신다. 우연이 아닌 필연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묵상해 보자.

왕은 잠이 오지 않아 신하에게 역대 일기를 읽게 하다가 모르드개가 자신을 살린 내용을 듣는다. 너무나 절묘한 타이밍에 하나님은 모르드개가 왕을 구한 것과 왕이 아무 상도 베풀지 않은 것을 알게 하신다. 왕이 모르드개에게 상을 주기 위해 신하를 부르는 그 타이밍에 모르드개를 죽이려던 하만이 도착한다. 치욕스럽게도 하만은 모르드개를 죽이려던 손으로 높이는 일을 하게 된다. 하만과 함께 잔치에 참석한 왕은 에스더가 무엇을 요청하려는지 세 번째로 물으며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약속한다. 분위기가 조성되자 에스더는 자신과 자기 민족을 살려 달라고 요청한다. 하만의 악한 계략이 밝혀지고 하만은 모르드개를 죽이려고 준비한 나무에 달려 죽는다. 유대인을 몰살하려던 하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순식간에 이루어진다.

- 적용을 위한 가이드

에스더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한 번도 언급하지 않지만, 일련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야기한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역사의 주권자시요, 우리 삶의 주권자시다.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삶의 현장에서 계속해서 인정하자.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이 간절히 부르짖을 때 외면하지 않으신다. 역전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에스더처럼 기도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는 용기를 내 보자.

/ 생명의삶 편집부

온누리가 함께 하는 기도

무슬림 전도를 위해서!

12년 전 온누리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순장으로 섬기면서 주님의 은혜로 감사한 시간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정형외과 의사로 일하면서 제 직업이 하나의 은사로써 아웃리치나 사회선교의 섬김의 과정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기도하였습니다. 그런 기도의 응답처럼 주님이 주신 기회를 통해 감사했던 계기들이 있었습니다. 한번은 아웃리치로 방문했던 몽골과 캄보디아에서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선교하는 과정을 통해 제가 하는 의술을 직업으로 주심에 감사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 한번은 동대문중앙공동체에서 섬기는 안디옥 열방교회의 무슬림 근로자들을 섬기면서입니다. 그들 중에는 다쳐도 여러 사정으로 제대로 된 치료를 받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적합한 치료와 의학적인 도움을 주면서 그들이 다시 일할 수 있는 상태가 되도록 도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무슬림 근로자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께 삶을 의탁하고, 세례 받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그들을 보면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동대문중앙공동체에서 여름 아웃리치로 무슬림 근로자들을 위한 맞춤전도 집회를 계획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무슬림 근로자들 모두를 주님 품으로 데려오기에는 아직 부족한 게 많지만, 그들에게 제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려고 합니다. 무슬림 형제자매들에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고.

/ 주성대 소장(동대문중앙공동체)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인 이유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신 의를 우리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죄인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믿음으로 응답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주어집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 이유는 우리의 불의함에 대해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에서 ‘하나님의 의’가 로마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 단어입니다. 죄인을 그리스도의 의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으로 인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또다시 나타나는 구절이 로마서 3장 21절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부터 시작해서 3장 20절까지 내용은 ‘하나님의 의가 왜 필요한가’, ‘왜 인간은 이 의가 없으며 하나님의 의가 값없이 주어져야 하는가’를 설명합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인간의 죄에 대한,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인간의 불의함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납니다. 이 나쁜 소식을 배경으로 기쁜 소식이 주어집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인간에게 구원이 주어져야 하는 이유는 구원받아야 하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으로부터 무엇으로’가 구원입니다. 사람들이 복음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은 자신이 구원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불의함을 불의함으로 여기지 못하고, 사회의 도덕 수준에 맞춰서 법과 제도에 문제가 없으면 “나는 문제 없다”고 여기며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인간 상태를 진단합니다. 인간은 죄인이며, 그 불의함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납니다. 병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있어야 치료할 수 있듯이 인간의 상태와 문제를 알아야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진노를 먼저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말하면 모두 이해하고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를 꺼내면 받아들이기 힘들어합

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받아들이는데,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거부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수없이 많은 하나님 진노의 표현이 있고, 로마서 말씀에 인간의 불의함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있음을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수많은 제사 제물이 죄의 값이 치러져야 하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부터 진노를 제거하는 것은 곧 복음을 훼손하려는 교묘한 사단의 전략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무시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복음을 깨달을 수 없고,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아는 자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본질적인 완전함

하나님의 사랑과 진노는 ‘본질적인 완전함’입니다. 대상에 따라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스러운 사람에게만 가지 않습니다. 사랑스럽지 않은 대상에게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배신하고, 부인하고, 믿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은 동일합니다. 그것을 가리켜 ‘본질적으로 완전하다’고 합니다. 대상에 따라 바뀌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람들은 대상에 따라 사랑이 바뀝니다. 나를 어떻게 대해주는가에 따라서 사랑이 바뀝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악한 행동을 하면 갑자기 분노로 바뀌고, 분노로 바뀐 마음에는 사랑이 온데간데없습니다. 또 스스로 경험에 비추어 하나님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인간이 불완전하고, 죄로 말미암아 파괴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완전하시고, 변하지 않는 분입니다. 대상에 따라 사랑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악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납니다.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본질적인 완전함이 아닙니다. 그래서 대상에 따라 달라집니다. 죄와 악이 없으면 나타나지 않고, 죄와 악이 있으면 분명히 나타납니다. 존 스토틀 목사님이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리하셨습니다.

“죄에 맞서는 하나님의 진노는 어떤 명백한 이유도 없이 이성을 잃고 폭발하신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분의 진노는 수수께끼 같거나 비이성적이지 않다. 그분의 진노는 예측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언제나 예측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악에 의해 그리고 오

직 악에 의해서만 유발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진노는 예측 가능합니다. 철저히 이성적입니다. 오로지 죄와 악에 대해서만 일어납니다. 그러나 인간의 분노는 자기 자신의 죄와 악 때문에 일어나기도 합니다. 불필요하고 과도하게 분노합니다. 죄와 악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상처와 미움으로 분노를 가속화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확하게 죄와 악에 대해서만 분노하십니다. 본질적으로 사랑이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왜 죄와 악에 대해서 분노하실까요?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서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붙들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거짓이 없고, 악을 미워하고 선을 붙잡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의 죄와 악에 대해서 진노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자녀가 죄와 악에 휩싸여 살아가도 부모에게 분노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해서 죄와 악에 대해서는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사랑의 한 모습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인간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기에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죄와 악에 대하여 진노하십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의 모든 불경건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18절).

첫째, 불의로 진리를 막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영원하신 신성이 명백히 나타남에도 그것을 불의함으로 막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두 가지 채널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하나는 인간 안에 주어진 양심 혹은 도덕 관념이고, 또 하나는 이 세상 만물을 통해 하나님을 분명히 알 수 있는 명백한 계시를 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가운데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것을 명백히 보여 주셨습니다. 세상이 창조된 이후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분께서 만드신 만물을 통해 명백히 보여 알게 되었으므로 그들은 변명할 수 없습니다”(19-20절).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채널 하나는 인간 안에 주셨습니다. 인간이 다른 모든 피조물과 다른

점은 양심 혹은 도덕이 있는 것입니다. 도덕은 옳고 그름이 있다는 감각입니다. 어린아이들도 싸웁니다. 가만히 보면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며 싸웁니다. 기준이 다를지 모르지만, 옳은 게 있다는 개념이 있습니다. 어느 시대, 어떤 민족, 어떤 문화에서도 옳고 그름에 대한 개념이 있습니다. 또 사람은 자신의 형편과 처지에 대해 비참함을 느낍니다. 그 감정이 어디서 올까요? 파스칼은 “인간이 비참함을 느끼는 것이 인간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가를 보이는 증거”라고 했습니다. 인간만이 느끼는 비참함은 마땅히 있어야 하고, 누려야 할 것을 누리지 못한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동물에게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인간이 느끼는 옳고 그름에 대한 도덕 개념이 없습니다. 인간은 도덕 개념이 있어서 법을 만들고, 질서를 만들고, 재판하고, 벌을 줍니다. 오직 인간에게만 있는 도덕 그 이면에 있는 양심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이 만물을 통치하게 하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인간에게 도덕 개념이 있기에 만물을 통치할 수 있습니다. 인간 자체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핑계할 수 없습니다”

둘째,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의 오묘함, 신비로움, 엄청난 질서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핑계할 수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계시를 막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의 불의함입니다. 비진리로 진리를 막는 것이요, 불의로 의로움을 막는 것입니다. 막무가내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믿고 싶은 것입니다. 무신론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 사람과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믿는 사람들만 존재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계시다고 믿는 것이 합리적일까요? 아니면 이 세상은 모든 것이 우연으로 시작되어서 우연으로 이루어진다고 믿는 것이 합리적일까요? 여러분, 무신론은 강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믿고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의로 진리를 막는 인간의 죄악 이면이 더 깊은 문제입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을 때 사람들은 두 번째 단계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생각이 허망해졌고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은 어두워졌습니다”(21절).

(13면에 계속)

자녀양육, 도와주세요!

자녀에게 가르쳐야 할 13가지 가치



“아이들은 아버지의 등을 보고 자란다”는 말이 있다. 아이들은 자아개념 없이 태어나지만, 고성능 카메라를 하나씩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오디오 시설이 완벽한 카메라는 누군가의 모습을 추적하고 담아둔다. 그의 말 한마디, 표정, 삶의 태도, 가치관 등을 놓치지 않고 담아둔다.

아이들의 고성능 카메라에 담기는 사람은 아버지다. 아이들은 아버지의 모습을 기억이라는 고성능 카메라에 담

아니다. 기억 속에 남아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아버지 요인(Father Factor)’이라고 한다. 그것은 한 아이의 삶의 방향과 질을 결정한다. 아버지 요인은 아이들이 자아개념을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뿐 아니라 아이들의 삶을 이끌어 간다.

사람은 바라보는 대상을 닮아간다. 사람은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바라보느냐에 따라 삶의 방향이 결정된다. 아이들은 아빠를 바라본다. 아이들의 어렸을 때 꿈은 ‘아빠 같은 사람이 되는 것’, ‘아빠 같은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다. 아빠는 아이들의 영웅이다.

조선 정조 때 이씨 부인이 쓴 책 중에 이런 말이 있다.

“아버가 자녀를 낳는 것, 어머니 기르는 것, 스승이 가르치는 것, 이 세 가지를 합쳐야 온전한 사람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방법은 의원이 병자를 고치는 것과 같아서 명의란 병 들기 전에 고치는 것처럼 사람 또한 낳기 전에 가르쳐야 합니다.

스승이 십 년 가르치는 것이 어머니 뱃속에서 열 달 가르치는 것만 못하고, 어머니 뱃속에서 열 달 가르치는 것이 부부 교합 때 아버지가 하룻밤 바르게 하는 것만 못합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인가? 아버지가 어떤 가치관과 인생관, 세계관을 가지고 있느냐가 결국 한 아이의 삶의 방향을 결정 짓는다는 이야기다. 몇 년 전 어느 조사 기관에서 청소년들이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를 조사했다. ‘미국 청소년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는 가족, 중국은 부자, 일본은 친구, 한국은 쾌락’이었다고 한다.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다.

아버지의 삶은 지표다. 아버지는 아이들에게 삶의 지표를 가르쳐야 한다. 영적이고, 도덕적인 가치를 가르쳐야 한다. 아니, 아버지 스스로 그렇게 살아야만 한다. 아이들은 아버지의 등을 보고 자란다. 아이들이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가기를 원한다면 아버지가 먼저 그 길을 가야만 한다. 아이들은 아버지가 남기는 흔적을 쫓아가고 있다. 아빠가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할 13가지 가치는 다음과 같다.

1. 잘 사는 것보다 바르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
2. 성공한 사람이 되는 것보다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
3. 쾌락보다 감동이 더 중요하다.
4. 속도보다 방향이 더 중요하다.
5. 집보다 가정이 더 중요하다.
6. 일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다.
7. 지적 능력보다 관계를 잘 맺는 능력이 더 중요하다.
8. 소유보다 존재가 더 중요하다.
9. 군림보다 섬김이 더 중요하다.
10. 내가 중요한 만큼 다른 사람도 중요하다.
11. 사랑은 받을 때보다 줄 때 더 행복하다.
12. 하나님이 맡겨 주신 사명을 향해 나아갈 때 진정한 행복이 있다.
13.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열국의 아버지와 어머니로 살아가야 한다.

특별한 성경공부와 선교여행!

대전온누리교회 차세대 ‘키즈 바이블’

대전온누리교회 차세대 친구들이 특별한 성경공부와 선교여행 ‘키즈 바이블’을 했어요. 지난 4월부터 7주 동안 <가스펠 프로젝트> 교재로 창조와 타락, 구원, 아브라함, 야곱, 요셉에 대해 배우고, 선교유적지 아웃리치도 다녀왔다고 하네요. 키즈 바이블에는 40여 명의 친구들이 참여했어요. 키즈 바이블이 얼마나 재미있었는지 참여한 친구들이 “얼른 키즈 바이블 2기도 열어주세요!”라고 목사님과 선생님들을 조르고 있대요. 얼마나 재미있는 시간이었는지 대전온누리교회 꿈땅 조하겸(초등 5학년), 오아인(초등 4학년) 학생이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하겸: 처음에는 주말마다 친구
들이랑 놀 수 있다는 생각에 열
른 키즈 바이블에 참여하고 싶었
어요. 그런데 매주 말씀을 배우다
보니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도 키졌어요.



하검: 예전에는 선교사님들이

아인: ‘ㄱ(기역)’자 모양의 김
제 금산교회를 보면서 선교사님
들이 우리나라 문화를 이해하고
배려해주셨다는 생각을 했어요.
옛날처럼 저희도 여자, 남자 따로
앉아서 목사님의 설명을 들었는

데 신기하고 재미있었어요.

키즈 마이블을 마치고 예배 시간이 더욱 즐거워졌대요. 설교 시간에 더 잘 집중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고 하네요.

아인: 키즈 바이블을 하면서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어요. 제 죄가 얼마나 큰지, 예수님이 저를 위해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셨는지 다시 깨달았어요. 나를 구원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1. 바울은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모든 일을 어떤 마음으로 해야 하는지 가르쳤어요. 말씀
을 읽고 빈칸에 알맞은 답을 채워주세요.

2. 바울은 자신을 도왔던 여러 사람을 소개하고 칭찬했어요(고전 16:17). 바울이 칭찬한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보기에서 골라보세요.

① 스테바나 ② 아브라함 ③ 브드나도 ④ 아
가이고 ⑤ 누가

정답과 함께 이름, 소속, 연락처를 적어서 이메일(hha0@onnuri.org)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23. 사랑이 없으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방인을 품고, 이해하고, 사랑했을 것이다!

결혼 이주 다문화가정 섬기는 '다문화사역팀'

삶은 늘 선택의 연속이다. 이것 아니면 저것을 선택해야 한다. 인생에는 반반 선택지가 없다. 무엇인가 선택해야 하고, 그 선택의 결과를 받아들여야 한다. 크리스천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그 기준이 무엇일까? 예수님이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선택해야 한다. 확실하고, 흔들림 없는 선택은 예수님에게서 나오기 때문이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지면에서는 선택의 순간 예수님의 뜻과 생각을 묻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성도와 사역팀을 소개한다. 오늘 주인공은 결혼 이주 다문화가정과 그 자녀들을 섬기는 '다문화사역팀'이다. 포천하랑센터(다문화가정 아이들을 위한 지역아동센터,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504 우주빌딩 2층)에서 다문화가정 아이들과 그 부모들을 품고 사랑하고 섬기고 있다. 예수님처럼.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심길섭 장로(다문화사역 담당, 강촌공동체)는 일요일을 그 누구보다 바쁘게 지내고 있다. 포천하랑센터를 섬기느라 하루가 어떻게 가는 지 모를 정도다. 심 장로는 매주 주일 1시간여를 달려 포천하랑센터에 간다. 봉사자들(강촌공동체, 요셉공동체)과 함께 기도모임을 하고, 포천하랑센터 주일예배를 드린다. 지난 6월 5일에는 다문화가정 아이들 18명이 포천하랑센터에 와서 함께 예배를 드렸다. 현재 포천하랑센터에는 다문화 15가정 자녀 26명이 소속되어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어 다행이다. 아이들은 직접 만나서 안아주고, 눈 마주치고, 같이 밥 먹고, 칭찬해주면서 유대감이 싹틀 수 있기 때문이다.

포천하랑센터 주일예배를 드리고 맛있게 점심을 먹으면 곧바로 오후 프로그램이 시작된다. 다문화가정 아이들과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아이들은 공과 프로그램(컴퓨터, 피아노, 기타 등 악기 교육)에 참가한다. 요셉공동체 청년들이 아이들을 섬긴다. 심 장로는 요셉공동체 청년들의 헌신과 섬김이 그렇게 귀하고 예뻐 수가 없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은 한국어교실에서 한글 공부가 한창이다. 학구열이 얼마나 뜨거운지 모른다. 한국어교실에서 공부하는 다문화 어머니들이 모두 15명이다. 한국어능력시험(토픽; TOPIK) 공부에 매진하고 있다.

오후 프로그램 마치고 센터 사역 정리하고 집에 돌아가면 밤이다. 먼 거리를 오가며 몹시 피곤할 텐데 심 장로는 힘과 여유가 넘친다.



지난 5월 21일 다문화사역팀 봉사자들과 포천하랑센터 다문화가정이 함께 체육대회를 했다.

“생각보다 멀지 않습니다(웃음). 우리가 다문화가정 아이들을 위해 많은 것을 해주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 아이들이 외롭지 않도록 옆에 있어 줄 뿐입니다.”

포천하랑센터에 나오는 다문화가정 아이들은 온누리교회 봉사자들의 헌신적인 섬김 덕분에 마음의 문을 많이 연 상태다. 함께 예배드리고, 공과 공부도 하면서 조금씩 신앙이 자라고 있다. 포천하랑센터를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이런 모습을 기대하기 어려웠다.

“아이들은 생김새가 다르다고 따돌림당하고, 어머니들은 한국어가 서툴고, 아버지들은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제대로 돌봄 받지 못한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그 때 문인지 아이들의 표정이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아버지에게 학대당해서 이 사회와 대한민국에 불만이 깊이 자리한 아이도 있었습니다. 상처받은 아이들의 마음을 달래고 위로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습니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니까요. 그 노력이 통했는지 요즘 아이들의 표정이 몰라보게 달라졌습니다.”

심길섭 장로는 다문화가정 아이들을 돌보는 일은 예수님의 제자라면 반드시 해야 할 사명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예수님이라면 다문화가정 아이들을 내버려 두셨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누구보다 다문화가정 아이들을 불쌍하게 여기셨을 것입니다.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포천하랑센터에 나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포천하랑센터를 시작할 때 왔던 아이가 벌써 대학에 입학했고 곧 군대에 갑니다. 아이들은 금방 자랍니다. 교육에는 때가 있습니다. 한창 사랑받고, 놀고, 웃고, 공부해야 할 아이들이 때를 놓치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부모와 학교, 사회의 돌봄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상처받고 방황하는 다문화가정 아이들의 마음을 우리가 위로하고 달래줘야 합니다. 그 아이들도 하나님 나라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들도 대

한민국 국민입니다.”

요셉공동체 청년들의 헌신을 빼놓을 수 없다

포천하랑센터 섬김에서 요셉공동체 청년들의 헌신을 빼놓을 수 없다. 김향자매(요셉공동체)는 2017년부터 포천하랑센터 다문화가정 아이들을 섬기고 있다.

“처음에는 ‘참관만 하고 와야지’라는 생각으로 왔는데, 이곳에서 만난 아이들의 열악한 상황을 마주하고 ‘정말 사랑이 필요한 곳이여 기구나’라고 느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거리가 멀어서 매주 오긴 힘들겠다 싶었는데, 그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내가 너를 사랑하듯이 그 아이들도 사랑한다. 그 마음을 네가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부터 포천하랑센터에서 다문화가정 아이들을 섬기기로 마음먹었다. 요셉공동체 지체들과 함께 포천하랑센터 주일예배를 처음 섬기러 갔다. 그런데...

“아이들이 분명 포천하랑센터에 오는 걸 봤는데 예배당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아이들이 모두 도망갔더라고요. 그때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이게 ‘영적 싸움이구나, 기도로 준비해야겠구나’ 깨달았습니다.”

아이들과 친해지는 것은 시간이 필요했다. 공격적이고, 날이 서 있고, 눈도 잘 안 마주치고, 스마트폰만 쳐다보고 있고, 이야기해도 듣지 않고 화내고 뛰쳐 나가버리기 일쑤였다. 처음에는 그 아이들을 이해하기 어려웠다.

“아이들이 정말 공격적이고 날카롭고 사나웠습니다. ‘도대체 이 아이들이 왜 이러는 걸까?’ 싶었습니다. 이해 안 될 때가 많았습니다. 한국어를 잘하는 애들도 말을 잘 듣지 않고, 문을 박차고 나가기 일쑤였습니다. 이 아이들과 지내면서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살면서 건강한 소통을 해보



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부모에게, 학교 친구들에게 온전히 인정받지 못하고 자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고집 피우고 난동 피우는 것밖에 모르는 거였습니다.”

포천하랑센터 아이들의 안타깝고 기구한 사연도 김향자매와 요셉공동체 지체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동네 일진 형들에게 끌려가서 오물 뒤집어 쓴 아이도 있었고, 한 여자아이는 외국인 엄마랑 단들이 단칸방에 살고 있었는데, 어머니 나라 노동자들이 한국에 오면 바로 숙소를 못 구하니까 숙소를 구할 때까지 같이 살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아이가 2차 성징이 나타나는 시기였는데 삼촌들이 한 방에서 지내는 게 좋아 보이지 않더라고요. 가장 안타까웠던 것은 이 아이들에게 꿈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분명히 이 아이들도 하나님이 이 땅에서 귀하게 살라고 보내셨을 텐데 말입니다. 꿈도 기쁨도 없이 스마트폰만 쳐다보는 아이들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도 희망이 있었다. 2019년 여름성경학교에서 흘린 다문화가정 아이들의 눈물이 그것을 보여줬다.

“2019년 여름성경학교에서 포천하랑센터 아이들이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눈물로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고 전율을 느꼈습니다. 기적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아이들이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고 매달리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정말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감동의 순간을 올해 다시 재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됩니다.”

다문화가정 아이들을 위한 기도와 도움의 손길이 절실합니다. 봉사자가 많이 필요합니다. 포천 주변에 사시는 성도님들, 정기적으로 포천하랑센터를 섬겨줄 성도님들이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삶이 변화되고, 꿈을 꾸고, 날개를 펼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십시오.”

문의: 02-3215-3434, 3436

3년 만의 여름 아웃리치 앞두고
2000선교본부장 김홍주 목사와 함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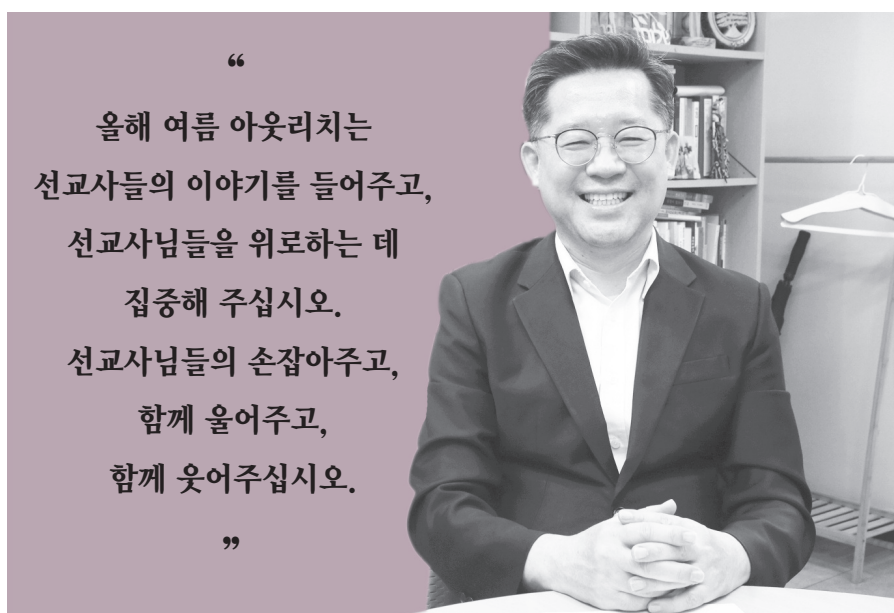
코로나19로 무너진 선교지를 재건하는데 집중하는 아웃리치!

아웃리치 인원 팀당 10명, 선교사의 안내 잘 따라야

3년 만에 여름 아웃리치다운 아웃리치가 시작된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안정을 찾아가고,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온누리공동체가 그토록 갈망하던 여름 아웃리치를 준비하고 있다.

3년 만의 여름 아웃리치를 앞두고 2000선교본부장 김홍주 목사를 만났다. 2년 반 넘게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가 선교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물었다. 또한 올해 여름 아웃리치는 어떤 목적으로 준비하고, 주안점이 무엇인지를 질문했다. 다음은 김홍주 목사와의 일문일답.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코로나19가 2년 반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있습니까?

“코로나19라는 두렵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서 이제는 얼굴을 마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는 선교에도 커다란 충격을 줬습니다. 특히 그 모진 시간을 홀로 헤쳐나갈 수밖에 없었던 선교사님들에게는 끔찍할 정도로 힘들고, 당황스러운 시기였을 것입니다. 선교는 선교지 영혼들을 직접 마주하며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그 힘든 시기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성숙하게 선교를 염려해 주시고 지원해주셨습니다. 선교사님들을 먼저 걱정해주시고, 적극적으로 중보기도 해주셨습니다.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의 관심과 지원, 적극적인 기도 덕분에 그 힘든 시기를 큰 탈 없이 지나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될 당시 선교지에서는 봉쇄조치로 경제적 어려움이 함께 찾아왔습니다. 그때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이 곧바로 비전헌금을 해 주셔서 각 선교지에 몇 차례 긴급구호를 실시할 수 있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은 그때의 긴급구호가 큰 효과를 발휘했다고

이구동성으로 간증하고 있습니다. 모두 온누리교회 성도님들 덕분입니다. 모두가 힘든 시기에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은 선교와 선교사님들을 먼저 기억하시고 도와주셨습니다. 시간과 재물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선교사 긴급철수나 의료 지원 등에도 적극적으로 헌신하셨습니다. 덕분에 수백여 명의 선교사를 적시에 철수시켜 온누리교회 선교사님들 중에서는 한 명의 희생자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타교회 출신 선교사님들 중 코로나19로 순직한 27명의 선교사 유가족들도 섬겨 한국 교회와 선교사님들의 감사인사를 듣기도 했습니다. 모두 성도님들의 관심과 지원 덕분이었습니다. 이제 그 사랑과 헌신에 힘입어 선교사님들이 다시 선교지로 돌아가고 있으니 감사할 뿐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수많은 선교지에서는 코로나19가 진행 중이라 마음을 놓을 수는 없습니다. 선교지에서 선교사들이 다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끝까지 선교와 선교사님들을 위한 기도와 지원을 해주십시오.”

코로나19가 선교에 미친 영향이 상당하다고 하셨는데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코로나19는 분명 선교의 큰 위기였습니다. 큰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성찰의 시간이기도 했고, 선교의 본질이 무엇인지 돌아보는 의미 있는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온누리교회 선교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세계 선교를 위해 힘 없이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잠시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멈춰있는 시간 동안 온누리교회 선교를 돌아보면서 반성하고, 성찰하고, 온누리교회 선교의 본질이 무엇인지 깊이 묵상했습니다.

그동안 온누리교회 선교를 돌아보니 시대가 변하고 있는데 관성(慣性)적으로 해오던 사역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시대에 맞지 않는 관성들을 떨쳐버리고 체질을 바꾸는 노력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19로 많은 선교사님이 어쩔 수 없이 현장에서 철수해야 했습니다. 선교사가 떠나고 보니 선교사 위주로 진행되던 사역들은 멈추거나 없어지고 현지 교회와 잘 협력하고 현지인 중심으로 진행되던 사역들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일은 우리가 현지 교회와 더 많은 협력을 하고 사역을 넘겨주고, 현지인들이 주도하고 우리는 촉매(catalyst)가 되는 선교로 나아가야 할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선교환경에도 커다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선교는 서구 교회가 이끌고, 다른 지역 교회들이 서구 교회가 걸어간 길을 모방하는 형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시기를 겪으면서 서구 교회가 모든 일에 해답을 제시할 수는 없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우리 스스로 고민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특별히 온누리교회는 이제 퍼스트 무버(First mover)로서 한국 교회뿐 아니라 세계 교회의 변화를 주도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 위치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선교가 또 어떤 모습으로 변모할지 궁금합니다.

“이제는 과거처럼 선교사를 환영하는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수년 전부터 중국과 인도에서는 선교사를 추방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일시적이고 지역적인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전 세계 많은 국가에서 자국의 이익만을 우선하는 현상이 계속될 것입니다. 이제는 호의적인 환경에서 선교하는 게 더욱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이후 선교는 더 창의적인 선교가 되어야 하고 더 많이 연합해야 합니

다. 이제는 좋은 싫든 현지 교회와 협력해야 합니다. 선교사나 교회 한두 개가 빠져도 선교가 계속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합니다.

또 지역화 현상이 심해지면서 온라인이 선교 도구를 넘어 새로운 선교지가 되었습니다. 중국이나 이슬람국가에서는 복음을 전할 수 없지만, 온라인에서는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온라인세계가 새로운 선교지라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MZ세대는 디지털 세대입니다. 그들을 디지털선교사, 온라인 선교사로 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온누리교회가 이제는 디지털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을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런 변화는 코로나19 때문에 생긴 변화라기보다 기존의 변화가 코로나19 때문에 가속화되었다고 표현하는 것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3년 만에 여름 아웃리치다운 아웃리치가 시작된다고 들었습니다. 올해 아웃리치 주안점이 무엇입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선교지가 태풍을 맞은 것처럼 초토화되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 과정에서 말로 다 못할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선교사님들이 그 상처를 추스르고 다시 선교지로 향하고 있습니다. 선교지를 재건하는 일은 선교사님들이 혼자서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의 응원과 도움이 필요합니다. 다 같이 선교지에 나가서 선교사님들을 돕자고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러나 안타깝지만 아직은 교회에서 성도님들께 적극적으로 여름 아웃리치를 권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산세도 수시로 변하고 있고, 해외 상황이 국내처럼 좋지 않은 시기입니다. 아직도 조심스러운 게 많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웃리치 인원을 팀당 10명으로 제한하였습니다. 성도님들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올해는 너무 많은 사역을 하려고 하기보다 선교사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분들의 요청에 따라 사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지 사정은 선교사들이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선교사의 안내를 잘 따라주십시오. 사실 지금은 많은 사역을 하지 못해도 선교지에 찾아가서 선교사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어만 주셔도 선교사들에게 큰 위로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상황에도 여름 아웃리치를 준비하는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올해 여름 아웃리치와 함께 선교의 문이 다시 활짝 열리는 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좋아하는 사람과 사랑하는 게 뭐가 문제냐고요?

군형법상 추행죄 무죄판결의 영향에 대하여



이상현 집사
(강남E공동체,
송실대 법대 교수)

군형법 제92조의 6은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군인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 4월 21일 대법원에서 군대 내 항문성교 및 기타 추행죄를 형사처벌하도록 명

시하고 있는 군형법 제92조의6의 해석을 지나치게 축소해서 “군인 간 영외에서 자발적인 합의에 의해 항문성교, 구강성교를 할 때 항문성교 기타 추행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쉽게 말해 영외 사적 공간에서 합의 하에 한 성행위에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바로 그 이튿날에는 군형법 제92조의6의 군대 내 항문성교 및 기타 추행죄를 삭제할 것을 제안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다.

법의 존재 그 자체가 주는 상징적 기능이 크다. 어떤 행위를 처벌하는 법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국민들은 그 행위가 잘못된 것이라는 무언의 인식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군형법 제92조의6에 관한 이번 대법원 판결과 개정안은 매우 우려스러운 것이다.

이 법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군형법 제92조의6의 내용은 동성애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정당화하는 것이므로 이를 삭제해 성소수자 군인을 차별과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군인의 인권을 지키려는 것이 발의 이유라고 한다. ‘합의하는 두 성인 간 사생활을 왜 법으로 처벌하는가?’, ‘단지 좋아하는 사람과 사랑을 나눈 관계가 뭐가 문제인가?’라는 주장이다.

요즘 세상에서 특히 개인의 사적인 성생활과 관련한 문제에 있어 진리를 말하는 것은 불친절하고 편협하다는 비난을 받는다. 그들이 선택한 사랑의 대상과 방법은 그것이 무엇이든 긍정해야 하고, 듣기 불편한 진리를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을 침묵시키거나 당황스럽게 느끼게 하는 구호들은 근본적으로 사랑과 진리는 양립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사랑과 진리는 절대로 분리되어야 할 필요도 없고, 분리되어서도 안 된다. 이 둘은 모두 진리와 사랑을 구현하신 동일한 근원 되신 예수님에게서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할 필요도 없고, 하나만 선택해서도 안 된다. 그렇다면 이렇게 첨예한 사안에 대해 ‘진리’를 어떻게 ‘사랑’으로 전달할 수 있는가?

사랑의 정의가 무엇인가?



“‘그저 모든 사랑은 똑같고 단순히 좋아하는 사람과 사랑하는 게 뭐가 문제냐’는 관념에 대해 구체적인 현실에 근거해 실제 인간의 변영에 무엇이 유익한지에 대해 합리적으로 설명할 때 ‘진리’가 설득력을 갖게 된다.
이 또한 사랑으로 진리를 설명하는 좋은 방법이다.”

우선 ‘사랑’이란 용어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 군형법 제92조의6의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단지 좋아하는 사람과 나누는 사랑”이란 ‘성적 행위’를 의미한다. C. S. 루이스가 〈네 가지 사랑〉에서 말한 하나님의 자비(아가페)나 부모의 애정(스토르게), 진정한 우정(필레오)은 물론 아니며, 연인 간의 사랑(에로스)도 아니다. C. S. 루이스는 에로스에는 성적 활동 외에 다른 요소도 들어있다고 했다. 에로스 없는 성적 욕망은 그것 자체를 원하지만, 에로스는 그 연인을 원하는 것이라 했기 때문이다. 사랑의 의미가 분명해지면 이 문제에 대한 설득력이 힘을 얻게 된다.

탈 동성애자이자 무디신학교 교수 크리스토퍼 유안은 “성생활은 인간의 존재 자체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행동에 관한 문제이다. 성적 지향은 행동, 감정, 욕구, 열정과 같이 인간이 경험하는 어떤 것이지, 인간의 존재 그 자체를 규정하는 어떤 것이 아니다. 성적 지향은 대개 스스로 통제하기 어려운 어떤 체험 같은 것이다. 단순히 동성에 끌린다거나 동성에 대한 욕구를 경험한다는 사실이 그러한 끌림이나 욕구에 대해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 자체를 정당화하지는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군형법 제92조의6에서 처벌하는 행위, 즉 남성 간 성관계는 성적 이끌림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응해 불건전한 성적 행위를 한 것을 의미

한다. 이 행위는 보건의적 유해성을 동반하기에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신분의 사람들이 단지 좋아한다는 성적 지향에 따라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 자체가 정당화되지는 않는다. 게다가 이번 대법원의 판결과 군형법 개정안은 군인이 영외에서 다른 군인에 대해 은근한 압력을 통해 추행한 경우 군형법상 항문성교 기타 추행죄를 적용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없애는 효력이 발생한다. 그렇게 되면 외압에 의해 실제 피해당한 하급 군인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법적 안전장치가 사라진다.

더욱이 대법원 판결의 사실관계에서처럼 채팅 앱으로 만나 영외에서 군인 간 성행위를 하며 복수의 군인 파트너와 성관계를 하는 것은 사적 생활 공간이라 하더라도 불건전하고 부도덕한 행위로 인한 군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에 침해가 발생한다. 심지어 이 법은 민간인에 적용되는 법이 아니고, 계급 체계와 군율의 특수성을 존중해야 하는 분단국가의 군대 내에서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법이다.

이뿐만 아니라 군형법상 항문성교 기타 추행죄는 “객관적으로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 관념에 반하는 행위”라는 60년 넘게 유지되어 온 판시가 있다. 이번 판결과 개정안은 이 판시를 파기하는 것으로 ‘채팅 앱을 통한 영외 항문성교’에 대한 도덕적 평가를 하지 않겠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이는 곧

항문성교는 HIV 감염, 성병 감염, 항문 열창, 직장염을 야기한다는 의학적 사실을 교육하지도 못하게 될 수 있다.

‘진리’를 ‘사랑’으로 전하는 좋은 방법

보다 근원적으로 이 주제에 있어 다음과 같은 설명이 필요하다. 피조물이 변영하는 방법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지상 명령이 반영되어 있다. 성관계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지상 명령을 수행하는 방법으로 피조물인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다. 성관계는 한 남성과 한 여성 간 혼인 관계 내에서만 이루어질 때 지상 명령의 완수와 인류의 변영에 가장 이롭다.

그러나 오늘날 기술의 발달로 각종 성병이나 HIV를 극복할 수 있고, 낙태나 피임으로 임신의 위험도 없앨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창조주보다 성관계의 목적을 더 잘 안다고 생각한다. 이들이 더 잘 안다고 생각하는 성관계의 목적이란 한 남성과 한 여성이 일평생 지속하는 연약적 관계인 혼인 제도 내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그 대상이 남성 이든 여성이든 혼인 관계에 있든 아니든, 내가 원하는 상대와 즐기는 일종의 레크리에이션 활동과 같다. 이러한 사고를 하는 사람들에게 인간의 존엄성이란 ‘성적자기결정권’에서 나온다.

인간의 존엄성을 ‘성적자기결정권’에서 찾는 사람들에게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인간의 생명이 존엄하다고 하는 복음을 소개해 주는 것도 진리를 사랑으로 전하는 좋은 방법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인간들이 거룩한 자손을 이어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혼인 관계 밖에서의 성관계는 동성이 아니라 이성 간 관계라 할지라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일관적인 관점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

요즘은 보조 생식 기술로 정자·난자 기증이나 대리모를 통해 동성 커플도 자식을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동성 혼인 관계에서의 성관계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접할 수도 있다. 그때는 반드시 친부모 중 한쪽 부모를 반드시 상실하는 보조 생식 기술로 태어난 자녀가 겪는 슬픈 문제에 대한 실례(케이트 파우스트 저 〈아이들은 정말 괜찮을까〉 참조)를 들려줘야 한다.

‘그저 모든 사랑은 똑같고 단순히 좋아하는 사람과 사랑하는 게 뭐가 문제냐’는 식의 추상적인 관념에 대해 이 글에서 설명한 내용과 같이 구체적인 현실에 근거해 실제 인간의 변영에 무엇이 유익한지에 대해 합리적으로 설명할 때 ‘진리’가 설득력을 갖게 된다. 이 또한 ‘사랑’으로 진리를 설명하는 좋은 방법이다.



목사님, 질문 있습니다!

문자보다 그 의미를 이해하고 적용하라!

“구약에 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이 있는 걸로 압니다. 그렇다면 피가 섞인 음식(선지, 순대 등)을 먹으면 안 되는 건가요? 음식을 가려먹어야 하나요?”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 오랜 역사를 거쳐 기록된 책이다. 현대에 지어진 책이 아니어서 여러 성경적 배경을 지니고 있다. 성경통독을 해본 사람이라면 ‘우리 시대에 어디까지 성경을 적용해야 하는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기 마련이다. 예를 들면 오늘 같은 질문이다. “구약에 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이 있는데, 우리는 피가 섞인 음식을 먹지 말아야 하는가?” 등의 궁금증 말이다. 실제로 구약성경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오늘날에도 선지해장국을 드시지 않는 분들도 있다. 하지만 이것은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적용한 것이라 볼 수 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에 대한 의미를 이해하기보다 문자 그대로 이해하고 적용한 것이다. 물론 성경 말씀을 삶에서 어떻게

해서든 지켜나가려는 그 마음과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바를 더욱 정확하게 알고 살아낸다면 올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더욱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피를 먹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은 레위기 17장에 자세하게 나온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를 먹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 피는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피는 생명 그 자체 혹은 생명의 근원(창 9:4-5, 레 17:11)으로 간주했다. 모든 생물의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먹는 것이 금지되었다. 둘째, 피는 속죄의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피는 그 자체에 포함된 ‘죽음’과 ‘생명’이라는 이중 개념으로 인해 죽음을 생명으로 바꿔 놓는 유일한 속죄의 수단으로 사용되었다(히 9:22). 이 밖에도 피를 마시는 행위는 이방의 우상 숭배자들이 즐겨 행한 제사의식이기도 했다. 이러

한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이 모든 이유를 통틀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성결’을 유지하기를 바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백성들도 거룩하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다(레 11:45).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다.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단순히 피를 먹느냐 먹지 않느냐의 문제로 여기는 게 아니다. 이미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완성되었다. 히브리인 중의 히브리인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으며, 동시에 이방인에 대한 이해도가 높았던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은 모두 선하므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딤후 4:4).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고자 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믿음과 마음이다.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성결을 위해 피를 금지하셨다면, 오늘날 나의 삶에서 동일하게 성결을 위해 금지해야 할 영역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믿음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이어가야 한다. 거룩한 고민과 씨름하며 살아갈 때 우리 삶에 말씀의 진리가 온전히 세워질 거라 확신한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성도’로 부르신다.

‘목사님, 질문 있습니다!’ 코너는 청년들의 신앙과 삶의 고민, 질문에 대해 대학청년부 목회자들이 조언과 격려를 건네는 코너이다. 고민 및 질문 보내실 곳: joo@onnuri.org



김한국 전도사
(여호수아청년부)

크리스천을 위한 부모상담

부부만의 긍정적인 습관 만들기!

좋은 습관은 한 사람의 인생을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는 에너지를 제공한다. 자신도 모르게 습관으로 습득된 행동은 삶의 패턴에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를 잡는다. 만일 하루가 긍정적인 습관으로 채워진다면 그 삶의 결과 혹은 열매들은 매우 풍요로울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부정적인 습관을 긍정적인 습관으로 바꾸려고 노력한다. 하지만 쉽지 않다는 것을 누구나 경험한다. 습관적으로 ‘불평과 불만’이 입술에서 떠나지 않는 사람이 ‘긍정적인 말’로 자신의 언어 습관을 바꾸려면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 부정적인 습관을 버리고 긍정적인 습관을 습득함으로 자신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좌절과 연단의 시간을 보내야 한다. 보통 한 가지 습관이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석 달 정도가 필요하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좋은 습관이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듯이, 부부의 긍정적인 습관도 삶을 매우 건강하고 친밀하게 만드는 힘이 있다. 반면 부정적인 습관은 부부 관계를 매우 어렵게 만들고,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부정적 역할을 한다. 부부가 매일 쌓는 긍정적인 습관과 행동은 부부 사이를 더욱 친밀하게 만든다.

가트먼(John Gottman) 박사는 습관적으로 매일 30분~1시간 정도를 할애해서 긍정적인 행동을 하는 부부는 친밀한 결혼생활을 유지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했다. 하루를 놓고 볼 때 부부가 만나거나 헤어지는 접촉점을 잘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출근 전, 퇴근 직후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야 한다. 긴 시간이 아니

더라도 서로 관심 있는 대화와 질문을 주고받는 것이 중요하다. 서로 나눈 이야기들을 중요하게 여기고 기억해야 한다. 물어보고 관심 가져주고, 중요한 일이 있다면 중간중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관심 가져야 한다. 하루에 부부가 가질 수 있는 중요한 접촉점인 출근 때와 퇴근 이후 시간을 잘 활용하는 것이 좋다. 부부가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는 긍정적인 습관이 자리 잡혀야 한다.

부부는 서로가 하루 중 만나는 접촉점을 의미 있게 보내려고 노력해야 한다. 서로에게 아무런 관심 없이 무의미하게 시간을 보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접촉점에서의 대화는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다. 짧은 시간을 잘 선용해서 서로에게 관심을 표현하고, 서로의 일정을 공유하고, 기억하고, 격려하면 된다.

여기에 가벼운 신체적 애정 표현을 하는 습관을 만들도록 노력해야 한다. 바쁘게 살다 보면 배우자의 손을 잡았던 기억이 가물거릴 정도로 신체적 애정 표현이 어색해질 수 있다. 매일 가벼운 신체적 애정 표현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부부는 친밀감을 잘 유지하는 부부라고 할 수 있다.

신체적 애정 표현과 함께 배우자에 대한 감사와 칭찬이 추가된다면 더 좋은 시너지를 얻을 수 있다. 서로에 대한 감사 표현은 하면 할수록 감사할 것이 많아진다. 칭찬도 마찬가지다. 배우자를 칭찬하면 할수록 칭찬할 것이 많아진다. 행복한 결혼생활을 원한다면 부부가 적어도 하루 한 번 이상 감사와 칭찬을 하는 것이 좋다. 감사와 칭찬이 부부 관계의 습관이

된다면 더없이 좋다. 일부러 노력하지 않아도 습관처럼 배우자에게 감사하고 칭찬할 수 있어야 한다. 배우자에게 무관심하거나 비난하는 것이 습관으로 자리잡혔다면 아주 작은 감사와 칭찬이 부부의 긍정적인 습관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시도해야 한다. 배우자를 향한 비난과 지적은 하면 할수록 지적거리와 불만거리가 많아지고, 배우자를 향한 감사와 칭찬은 하면 할수록 감사거리와 칭찬거리가 많아진다.

긍정적인 순환은 부부 관계를 더욱 긍정적으로 강화시킨다. 부부가 매일 의미 있는 접촉점을 갖고, 그 접촉점을 잘 활용하는 긍정적인 습관이 형성된다면 부부는 행복과 친밀을 경험하게 된다. 친밀감을 유지하고자 하는 부부가 주중에 짧은 시간을 활용하는 긍정적인 습관을 매일 반복했다면,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한두 시간 정도 할애해서 부부 데이트나 부부 활동을 하는 게 좋다. 부부가 서로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다. 부부가 함께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다. 습관처럼 자연스럽게 “밖에서 커피 한잔 할까?”라는 식으로 부부가 데이트하거나 부부만의 특별한 활동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기면 부부 관계가 더 가까워진다.

부부는 하나이면서도 개별성이 있다. 개별성 추구에 집중하다 보면 부부의 하나 됨이 약해질 수 있고, 지나치게 부부의 하나 됨을 강조한다면 개별성이 약화될 수 있다.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면서 친밀감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 부부 데이트는 부부가 개별적이면서도 하나 됨을 느끼고 경험하는 매우 특별한 시간

을 제공한다. 연애할 때 남녀가 시간을 함께 보내고자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갈망이었다면, 결혼 이후에는 노력이 필요하고, 습관으로 만들어 가는 연습이 필요하다. 아이가 어려서 부부만의 시간을 좀처럼 내기 어려운 부부라면 포기하지 말고 아이들을 돌봐 줄 가족에게 부탁하는 것도 좋고, 베이비시터를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어린아이들이 있는 부부들에게 부부 데이트 한두 시간은 정말 금쪽같은 시간이다.

친밀감을 유지하는 부부, 행복한 부부, 단절의 위기를 효과적으로 극복해 가는 부부가 되기 위해서는 일상의 짧은 부부의 접촉점을 잘 활용해야 한다. 오늘 하루 배우자의 중요한 일정이 무엇인지, 몸과 마음의 상태는 어떤지, 기억해야 할 것들은 없는지 묻고 기억해야 한다. 따뜻하고 가벼운 신체적 애정 표현도 필요하다. 정기적으로 부부가 데이트하고 부부만의 시간을 갖는 것도 중요하다. 부부만의 긍정적인 습관을 조금씩 쌓아야 한다(눅 22: 39-46).

나눔: 우리 부부가 실천하고 있는 부부만의 긍정적인 습관은 무엇입니까? 계발과 성장이 필요한 부부의 긍정적 습관은 무엇입니까?



황규복 박사,
김숙경 소장 부부
(두란노 결혼예비학교
부부강사, <그런 당신이
좋다> 저자)

이달의 신앙의 선배

한국 교회 최초 여성 순교자 ‘문준경 전도사’



문준경 전도사

호국보훈의 달 6월이다. 이달에 만날 신앙의 선배는 한국 교회 최초 여성 순교자로 알려진 ‘문준경 전도사’다. 문준경 전도사는 하나님을 만나고 평생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했다. 6.25 전쟁통에 성도들을 보호하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다 순교했다. 문준경 전도사는 1891년 2월 전라남도 신안의 작은 섬 암태도 수곡리에서 태어났다.

진사였던 할아버지 덕에 넉넉한 양반 가문에서 귀여움을 독차지하며 유복하게 자랐다. 소녀 문준경은 유순했고, 그 지혜와 총명함이 남달랐다. 오빠들처럼 글을 익히고 공부하고 싶어 했지만, 아버지에게 가로막혔다. 여자아이가 글을 배우기 어려웠던 시대였기 때문이다. 사회적 관습의 벽에 가로막힌 그녀는 1908년 3월 열일곱 어린 나이에 사업을 하던 남편 정근택 씨를 만나 결혼했다. 부부 사이는 좋았지만 둘 사이에 아이를 낳지 못했다. 집안의 대를 이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문준경 전도사는 남편에게 둘째 부인을 얻으라고 제안했다. 1922년 1월 남편 정근택 씨는 두 번째 부인을 맞았다. 그리고 둘 사이에 딸이 태어났다. 문준경 전도사는 남편의 둘째 부인과 딸에게도 정성을 다했다. 둘째 부인이 아이를 낳을 때도 문준경 전도사가 직접 받아주고 산모를 돌보고 산후조리를 시켰다. 이후 태어난 아이들에게도 깊은 사랑을 나눠주었고 아이들도 문 전도사를 “큰어머니”라고 부르며 잘 따랐다.

가족을 돌보던 문준경 전도사는 1926년 형제들의 권유로 목포로 건너와 신앙생활을 시작했다. 목포 북교동 성결교회에서 예

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과 사랑에 빠졌다. 문준경 전도사는 1년 만에 학습과 세례를 받고 개인전도와 축호전도(집을 방문하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 가장 열성을 보이는 성도가 되었다. 그녀는 늘 찬송을 부르고, 마을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전도사로 거듭났다. 복음 전하는 일에 소명이 생긴 문준경 전도사는 경성성서학원에 진학하기로 했다. 그런데 당시에는 결혼한 여자는 학교에 입학할 수 없는 관례가 있어서 청강생 신분으로 수업을 들었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이성봉 목사(목포 북교동 성결교회)가 보증을 서준 끝에 정식으로 사역자 훈련과정을 밟을 수 있었다.

문준경 전도사의 전도 열정은 학업을 하는 동안에도 식지 않았다. 방학마다 고향 신안군 지역으로 내려가 복음을 전했다. 1932년부터 신안군 지역을 순회하며 증동리교회를 중심으로 진리교회와 대초리교회 등을 설립했다. 졸업 후에도 대도시에서의 목회를 마다하고 고향으로 돌아왔다. 나룻배를 타고 이 섬 저 섬 교회가 없는 지역을 돌아다니며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전했다. 문준경 전도사가 세운 교회와 기도처만 10여 곳이고, 그 영향으로 신안 지역에만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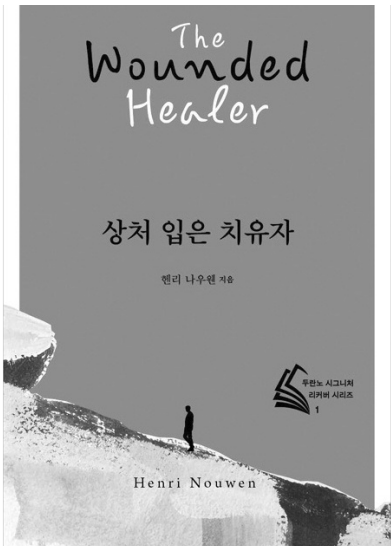
여 개 교회가 세워졌다. 복음 들고 섬을 왕래하느라 1년에 아홉 켄레나 되는 고무신을 바꿔 신어야 했다.

1943년 일제의 탄압이 섬마을에서도 시작되었다. 문준경 전도사가 개척한 증동리 교회에도 신사참배를 강요했다. 그녀는 신사참배를 거부했고 목포경찰소에 끌려가 고문을 당했다. 온갖 고문에도 굴복하지 않으며 ‘환란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을 지켰네’라는 찬양을 부르며 저항했다.

해방 후 또 시련이 찾아왔다. 공산당을 따르는 좌익들의 활동이 신안까지 영향을 미쳤다. 6.25 전쟁 중에는 섬 전체가 인민군에게 장악되었다. 이때를 틈타 평소 교회를 못마땅하게 여기던 사람들이 문준경 전도사와 성도들을 괴롭혔다. 문준경 전도사는 갖은 핍박 속에서도 계속 성도들을 돌보고 복음을 전했다. 1950년 10월 4일 국군이 증도에 들어온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악의에 찬 공산당원들이 교인들을 처형하기 시작했다. 교인과 양민들을 바닷가 모래사장으로 끌어내 한 사람씩 단도로 내려쳐 죽였다. 그곳에 문준경 전도사도 있었다. 문준경 전도사는 그해 10월 5일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라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순교했다.

두란노 신간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상처 입은 치유자〉
헨리 나우웬 저 | 두란노 | 10,000원

잘못 이해하여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사람들에게 사역자 자신의 경험을 치유의 원천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헨리 나우웬은 자신의 고통을 깊이 이해할 때 진정한 치유가 일어남을 역설했다. 상처 입은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상처를 보고, 치유할 수 있다. 내면에 감춰 둔 상처를 드러내 보임으로 자신의 상처와 다른 이의 상처를 치유하는 원천으로 만든다. 무엇보다 우리의 연약함과 상처를 만지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수 있다. 혼란과 절망에서 벗어나고 싶은 성도, 자신의 상처를 온전히 치유하기 원하는 성도, 상처로 신음하는 다른 이들을 돕고 싶은 성도에게 추천한다.

아빠가 나를 부르는 여러 별명 중에 가장 좋아하는 별명이 있다. ‘상처 입은 치유자’다. 삶 전체가 흔들릴만한 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내게 아빠가 “같은 아픔을 가진 이들을 품어주고 치유하는 사람이 돼라”며 책 한 권을 선물하셨다. 그 책이 〈상처 입은 치유자〉다.

책 〈상처 입은 치유자〉는 1972년 헨리 나우웬이 쓴 역작이다. 무려 50년 전 쓰인 책인데 아직도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고 있다. 〈상처 입은 치유자〉출간 50주년을 맞아 개정판이 출간되었다.

헨리 나우웬은 이 책에서 사역자를 ‘상처 입은 치유자’로 재정의한다. 자신의 상처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일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전에는 사역자뿐만 아니라 모든 크리스천이 가져야 할 사명이다. 하나님은 모든 성도를 ‘상처 입은 치유자’로 부르셨다.

“자신의 고통을 깊이 이해할 때 사역자는 자신의 약점을 강점으로 바꿀 수 있으며, 자신들의 고통을

기독 OTT ‘풍당’ 추천 콘텐츠

김병삼 목사와 함께 읽는 신앙 서적



〈복음책방〉

회)와 여러 게스트가 함께 그 책을 읽는다. 〈복음책방〉에서는 이름만 들어도 아는 고전 〈천로역정〉,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고백록〉부터 온누리교회 성도들에게 친숙한 〈나는 선교에 목숨을 걸었다〉 등 30여 권의 신앙 서적을 소개하고 있다. 책장에만 꽂혀 있던 책, 어려워서 읽지 않았던 책을 꺼내 함께 읽으면서 신앙의 영양제로 삼아 보자. 〈복음책방〉 마지막 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몸소 실천한 20세기 최고의 영성이 헨리 나우웬의 저서 〈예수의 길〉을 소개한다. 〈예수의 길〉은 헨리 나우웬이 하버드대학 교수직을 내려놓고 발달장애인 공동체로 가기 전에 섰던 내용을 엮은 책이다.

“페루 선교 활동을 중단하고 귀국해서 하버드대학 교수직에 몸담고 있을 때였다. 페루에서 겪은 불안감과 외로움은 대학까지 그를 따라 왔고 대학의 경쟁적 분위기는 헨리 나우웬을 더 부추겼다. 불안한 시대를 사는 법을 다룬 강연이 이토록 생동감 넘치는 이유는 헨리 나우웬에게 이 주제가 현실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어떻게 따를 것인가 문제가 그의 문제였다. 그로부터 넉 달이 못 되어 그는 하버드 종신 교수직을 그만두고 토론토로 이주해서 지적장애인들과 더불어 사는 ‘라르쉬 데이브레이크’의 원목이 되었다.”

김병삼 목사와 함께 불안한 시대 예수님을 어떻게 따를지를 사색하는 특별한 경험을 해보자.

정보의 홍수 속에서 양질의 정보를 찾는 게 중요한 시대다. 신앙 서적도 마찬가지다. 매일 출판되는 많고 많은 신앙 서적 중에서 무엇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 기독 OTT ‘풍당’ 콘텐츠 〈복음책방〉이 그 고민을 덜어준다.

〈복음책방〉에서는 현대 크리스천들이 읽으면 좋은 책을 선정하고, 김병삼 목사(만나고

‘달려라풍당’ 챌린지 종료

6월 14일까지 운동한 거리만큼 후원

CGNTV ‘달려라풍당’ 챌린지가 종료됐다. ‘달려라풍당’ 참가자들은 운동한 거리만큼 6월 14일까지 후원금을 입금하면 된다. 참가자들은 6월 12일까지 운동한 거리를 기록한 미션캘린더를 사진으로 찍어서 풍당폰(010-6555-2243 문자수신 전용)으로 전송하고, 6월 14일까지 운동한 거리만큼 계좌이체 하면 된다. 기부플랫폼 ‘체리’ 앱으로 참가한 성도들은 체리 앱에서 후원해도 된다. 달려라풍당 챌린지 시상식은 6월 23일 온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달려라풍당 챌린지 후원금으로 지원할 ‘풍당교회학교’를 찾고 있다. 풍당교회학교로 선정되면 스마트폰 TV 등 주일학교 운영에 도움이 되는 장비를 지원받는다. ‘국내 정식교단 등록교회’, ‘성인성도 100명 이하인 교회’, ‘유아~초등학생 어린이가 1명 이상인 교회’ 조건을



‘달려라풍당’ 챌린지에 참여하고 있는 차세대 아이들.

만족하면 된다. 6월 30일까지 네이 버 폼(QR 코드)로 신청하면 된다. 계좌: 573-910010-98304 (하나은행 재단법인 온누리선교

재단) 문의: 02-796-2243 / 김명선 기자 k4458@onnuri.org



“예수의 사랑으로 섬기십시오”

제8회 장로아카데미 영성수련회 개최

제8회 장로아카데미에서 영성수련회를 지난 6월 6일(월) 서빙고온누리교회 두란노홀에서 개최했다. 장로아카데미 영성수련회는 이주연 목사(산마루교회) 말씀, 중보기도, 미션 공유, 레크리에이션, 조별 발표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주연牧사는 “사도 바울의 위대한 점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의 고난을 깊이 체험하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진정으로 사랑했다는 것”이라며 “온누리교회 장로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기를 바란다”고 권면했다. 장로아카데미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장로의 영적 성숙과 리더십 개발을 돕는 학습공동체이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장로가 되기를 희망하는 장로들의 친교 공동체이다. / 정현주 기자

6월 28일까지 온누리 온라인커뮤니티

매주 화요일 오후 8시 온라인(Zoom)

온누리 온라인커뮤니티(Onnuri Online Community: 이하 온라인커뮤니티)가 6월 28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8시부터 9시까지 1시간 동안 온라인(Zoom)으로 진행된다.

온라인커뮤니티는 여러 사정으로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20세 이상 성도들을 위한 맞춤 온라인 공동체다.

이번 학기 온라인커뮤니티는 지난 3월 15일 개강했다. 한건수 대표(국민대 겸임교수), 김숙경 소장(결혼예비학교 강사) 등의 강의가 이어지고 있다. 여성민 목사(전도사역본부장)와 이준인 목사(갈렙청년부)는 <생명의 삶> 묵상 말씀을 주제로 소그룹 모임을 인도하고 있다.

오는 7월 9일(토)에는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역 탐방을 할 예정이다. 온라인커뮤니티에 참가하고 싶은 성도는 온누리교회 홈페이지(www.onnuri.org)에서 신청하면 된다.

탁구로 선교드라이브!

제8회 온누리열방탁구축제 150여 명 출전

제8회 온누리열방탁구축제가 지난 6월 6일(월) 양재온누리교회 화평홀과 온유홀, 하용조홀에서 막 올랐다. 국내 온누리교회 10개 캠퍼스에서 선수 150여 명이 출전해서 교

제하고 선교 열정을 불태웠다. 한편 양재온누리교회 2000선교 스포츠선교팀은 9월 아부다비와 탄자니아 스포츠 아웃리치를 계획하고 있다.

여름 한동 영어 캠프 열린다!

7월 15일까지 전화나 홈페이지 신청

여름 한동 영어 캠프(Summer Handong English Camp)가 7월 25일(월)부터 8월 12일(금)까지 한동대학교 캠퍼스(포항시 북구 흥해읍 한동로 558)에서 열린다. 대상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다. 참가 신청은 전화나 한동대학교 홈페이지(www.handong.edu)에서 7월 15일(금)까지 하면 된다. 참가비는 300만 원(수업료, 숙식비 일체 포함).

여름 한동 영어 캠프는 인성 및 신앙 교육에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이다. 기독교 세계관에 입각한 교육으로 신앙과 인성을 겸비한 다음세대로 성장하도록 돕는 게 목적이다. 여름 한동 영어 캠프에서는 모든 구성원이 영어만 사용한다. 대학생 멘토링 시스템도 운영한다. 한동대학교 학생들이 멘토가 되어 모든 캠프 일정에 함께 참석한다. 문의: 054-260-3044, 3045

6월 화요성령집회 ‘킹덤 파이오니어’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대학청년부 6월 화요성령집회가 ‘킹덤 파이오니어(Kingdom Pioneer)’를 주제로 이어진다.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서빙고온누리교회 본당에서 진행된다. 온누리교회 대학청년부 유튜브 채널에서도 참여할 수 있다.

6월 화요성령집회 ‘킹덤 파이오니어’에서는 7월 김승수 목사 ‘열방에 길을 내는 Pioneer’, 14일 최성민 목사 ‘열방으로 나아가는 Pioneer’, 21일 김승수 목사 ‘열방을 구원하는 Pioneer’, 28일 김윤식 목사 ‘Kingdom Pioneer’를 주제로 말씀을 전한다.

/ 홍하영 기자

연애, 결혼 세미나 ‘나, 그리고 우리’

6월 11일과 18일 신촌역 히브루스 카페

SB리빙공동체에서 청년들을 위한 연애, 결혼 세미나 ‘나, 그리고 우리’를 개최한다. 6월 11일과 18일 오후 4시 신촌역 히브루스 카페에서 진행된다. ‘가족 안에서 자신을 이해하기, 가족으로부터 건강하게 독립하기’, ‘건강한 사랑과 관계를 위

한 인성, 영성, 사회성 키우기’를 주제로 김숙경 소장(사랑연구소, 두란노 결혼예비학교 강사)이 강의한다. 참석을 원하는 성도들은 문자메시지로 소속 공동체, 이름, 사전 질문 등을 보내면 된다. 회비는 1만 원. 문의: 010-2845-3206

두란노어머니학교 6월 온라인 P.P 기도회

6월 20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온라인

두란노어머니학교 6월 온라인 P.P(Power Prayer) 기도회가 열린다. 6월 20일(월) 오전 10시 30분부터 정오까지 두란노어머니학교 유튜브 채널에서 진행된다.

가정과 사역, 교회를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어머니라면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다. 두란노어머니학교 온라인 P.P 기도회는 매월 셋째 주 월요일에 진행된다.

양재 일대일 동반자반 수료자(22년 6월 19일 양재 주일 2부 예배)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 강남A 권현미 임애련 김영준 권순형 모 진 신선경 박연진 이순자 박영실 이선희 이미란 전애리 이선지 김정아	■ 강남C 고현진 김정순 김연지 권정미 김정영 남정이 양승남 박 윤 오세광 최성건 오연숙 조복희 임근하 조덕규 최성윤 박정원	이상호 최준영 이승주 이해진 이재연 이정욱 임청미 김세영 한호준 강희찬	■ 과천의왕 김은혜 원종화 안세연 김지민 유지영 조혜윤 최신혜 김효은	■ 분당B 심유정 오정미 양창렬 최재훈 윤희진 최선영 이진민 김정숙	이소영 정윤선 이종림 양관석 정희정 한송희	유승희 김민주 진성범 임정국 최영숙 황경아	■ 푸른누리 김태현 이병후 나수지 안수연 목지선 윤유나 박두희 권순철 박민재 이병후 박상훈 강호균 배중권 서형원 서주현 문대홍 손호진 김동철 송근화 임동연 이강성 이재훈 이용은 정래남 이한빈 조순례 정성은 안선희	■ 프랑스어배 우종일 신경철	■ Bridge33+ 석동재 강원조 이아영 박혜린 전민희 김기원 최문정 명현숙	■ Point5 김환규 박준영 박은규 표민지 서유진 임진숙 이승호 안상욱 장유정 이은주 최혜은 신영주	● 대학청년 ■ 여호수아 강유진 윤홍재 고은별 이정심 곽윤선 이용옥 김경근 김기훈 김선욱 마영휘 김신영 김명숙 김주영 임지은 김찬숙 이혜옥 김하진 신혜원 김현정 정인애 김혜선 김재인 나호근 이상협 류 민 이은영	문영진 오범규 민지윤 이진숙 박연희 이윤신 박초롱 정수년 변지현 조인화 송은서 최윤정 양은영 정은정 정대원 강희찬 조민희 김미경 조정인 김소영 함하나 장숙례	■ 허브 김다녔 김성훈 김하민 박환성 김한나 김이경	■ 맹성주 이종환 신동화 윤성주 신효은 도재현 오소예 정혜경 이민영 가나현 이승범 박성준 이주희 김주연 정소윤 이해정 최성주 김권일 홍예빈 도재현	■ J4U 김인나 김선하 김홍철 이승현 박찬서 황호성 박희재 박진구	백찬미 이옥한 안지은 박하정 이재영 도재현 장 미 박하연 최명아 심혜정			

행복드림콘서트 간증



/ 문관희 성도(이촌공동체)

내가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을 때 친구가 했던 말이 생각난다.
“너는 가족 중에 믿는 사람이 없으니 너를 위해 기도할 사람이 꼭 필요하겠다.”
이 말을 부인할 수 없어서 씁쓸했다. 나 자신이 영적 고아라는 사실이 서글펐고, 좋은 하나님을 알아갈 때마다 나 혼자 좋은 것을 누린다는 생각에 진정으로 기쁘지 못했다.
2018년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나는 아버지가 천국에 가셨다고 믿지만, 아버지께 예수님을 온전히 전하지 못한 것이 마음 깊이 아쉬움과 후회로 남았다. 혼자 되신 어머니를 보면서 이 좋은 하나님을 만나게 해드리고 싶었다. 쓸쓸하고 공허한 세상만 바라볼 게 아니라 어머니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엄마의 하나님’을 알게 하고 싶었다.
신앙을 갖겠다는 증서도 쓰지 않고, 세례도 받지 않겠다는 어머니가 하루 전날 갑자기 행복드림콘서트에 오겠다고 하시고, 세례도 받겠다고 해서 속으로 많이 놀랐다. 어머니께 “왜 갑자기 마음이 움직였어요?”하고 여쭙봤더니 오래 기도하고, 영상도 보여드리고, 편지도 읽어드리고 했던 모든 것이 감동이었다고

엄마의 하나님

하셨다. 마음에 내내 남아 날짜를 기억하고 있었다고 하셨다. 세례받기 하루 전에 지병으로 멀리 있는 병원에 다녀와야 해서 행복드림콘서트 세례식에 오는 게 부담이었는데,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에 교회에 꼭 가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다고 하셨다.
모든 것이 낯설었을 텐데 목사님이 기도하실 때 옆에서 “아멘”으로 화답하는 어머니의 모습이 꿈만 같았다. 세례를 주신 목사님께서 드보라와 같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라고 하셨다. 어머니께 드보라가 어떤 인물인지 알려드렸더니 휴대폰에 저장하셨다. 2022년 5월 28일이 어머니가 다시 태어난 날임을 말씀드렸더니 날짜와 세례 주신 목사님 성함을 같이 적으셨다.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자녀로 정체성이 바뀐 어머니를 보면서 하나님의 오묘함과 선하심과 크신 계획이 놀랍기만 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행 16:31).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 성취되었다. 아직 믿지 않는 나머지 가족들도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만드시리라 믿는다. 세상 가장 좋은 것을 선물해주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다.

헤브론카페 & 스타트리협동조합



/ 이경원 선교사(인도네시아어예배)

언니네 어린이집을 정리하면서 서랍장과 책장을 받아 놓았다. 이주민 자녀 돌봄은 스타트리협동조합을 만들기 전부터 계획했다. 인도네시아 봉사자 미나 선생님의 비전인 돌봄을 받지 못하고 방치된 아이들을 돌보고 싶은 마음을 알기에 미리 보육교사 과정을 공부하라고 권하고 차근차근 기도하며 준비했다. 헤브론카페를 운영했던 목사님께서 선부동에서 나무와 열매교회를 하신다. 그 교회에서 아이들을 섬겼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다. 목사님께서 남은 교실이 2개나 있다면서 마음껏 사용하라고 하셨다. 목사님께서 직접 필요한 물건들을 운반해주셨다. 나무와 열매 교회에는 드림이 없었다. 인도네시아 형제에게 드림을 가르치면 시스위로 삼촌의 아들을 전도하면 좋을 텐데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다. 목요일에 선교기도회에 참석했다. 조금 일찍 갔는데 선교사님들이 집을 옮기시길래 뭐라도 도울 요량으로 따라갔다. 드림을 옮기고 있었다. 드림을 바닥에 내려놓고 들어가시길래 “이렇게 밖에 뒤도 되냐”고 물었더니 “버리는 드림”이라고 하셨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같았다. 바로 드림을 실어 왔다. 하나님의 세심함에 감사하는 하루였다. 나무와 열

하나님의 기적이 매일 일어난다!

매교회에서 작은 도서관이 시작된다. 미나 선생님 역시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가정을 꾸리고 사역을 시작하는 데 잘 준비하도록 성령님께서 지혜 주시기를 기도한다.
하나님의 기적이 매일 일어난다. 사람을 붙이시고, 물질을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신다. 헤브론카페 영어와 한국어 수업도 잘 진행되고 있다. 매출도 많이 올랐다. ‘International Cafe’라는 간판을 붙이고 나서 외국인들이 많이 오고 있다. 영어예배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영어예배를 위한 친목과 교제 모임으로 작은 파티를 열었다. 유학생 16명이 모였다. 인도네시아 친구들이 8명이나 왔다.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에 인도네시아 유학생이 이렇게 많은지 몰랐다. 하나님이 한양대 앞에 헤브론카페 & 스타트리협동조합을 주신 이유를 알 것 같다.
얼마 전에는 인도네시아 친구들의 요청으로 짬뽕을 만드는 수업을 했다. 이주민들이 친구들을 불러 모으는 장소로 스타트리협동조합이 사용되어서 감사하다.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이 언제나 방문해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주민들의 친구, 형, 오빠, 언니, 누나, 엄마, 아빠가 되어줬으면 좋겠다.

관계기술훈련학교 수료 간증



/ 김효진 성도(서초C공동체)

관계기술훈련을 받으면서 기쁨을 내 정서의 베이스캠프로 확고하게 할 수 있었던 게 가장 큰 수확인 듯하다. 기쁨이 기본값이라는 선언이 정말 놀라웠다. 기쁨은 저 멀리, 저 높이 있는 줄만 알았다. 나는 대체로 못마땅하고 무엇인가 불안한 불쾌감을 안고 살았다. 그것이 나에게 집중된 삶의 패턴 때문이었다는 것을 관계기술훈련 덕분에 확실히 자각했다. 나는 일하고 공부하고 관계를 맺으면서도 계속 ‘나’에게 집중하면서 살았다. 나의 치유, 나의 발전, 나의 성숙, 나의 일, 나의 미래, 나, 나, 나... 자기의 유익을 꾀하는(self-serving) 것뿐 아니라 지나치게 자기 탐색적이고(self-seeking), 자기에게 관심하는(self-interested) 것도 기쁨을 앗아가는 것 같았다. 조원들과 감사일기를 쓰고 삶을 나누면서 서로 관심을 보이고 의지하고 기도하며 울고 웃은 두 달 동안 나의 주요 정서는 분명히 ‘기쁨’이었다.
관계기술훈련에서는 집 외일터 목사님이 개발한 ‘인생모델’로써 우리의 발달과 성숙을 가능하게 한다. 이것은 출생부터 죽음까지 인간이 어떻게 성숙을 극대화하고 풍성한 삶을

기쁨과 함께 살아가기

누릴지에 관한 이상적인 모델이다. 일부 상담 이론가들은 자기실현 욕구와 그 가능성이 개인 내면에 이미 충분히 있다고 말하지만, 인생 모델과 관계기술훈련을 개발한 이들은 다르게 말한다. 개인이 풍성한 삶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인생모델이 제시하는 인간발달은 후기로 갈수록 타인에게 더 확장적이다. 장년과 노년의 모델은 가정을 넘어 사회와 다음 세대에까지 뻗어가는 공동체적 정체성과 돌봄을 과제로 제시한다. 내가 바로 이 지점에 있다. 딸이 성인이 될 즈음 상담 공부를 시작했고 지금은 내담자들을 만나고 있다. 후기 성인에게 얻은 이 선물이 제대로 방향을 잡는데 관계기술훈련이 큰 도움을 주었다. 어렵듯이 나도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넘어 사회에 기여하고 싶다는 욕구를 느껴 뒤늦게 공부하고 수련을 시작하였다. 자신이 없고 멈칫거리기도 했는데, 관계기술훈련을 통해 기독교인에게 자연스러운 발달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그 덕분에 다른 사람과 함께 사는 삶에 눈을 더 뜨게 되었고, 힘을 뺄 수 있었다.

순장학교 수료 간증



/ 김민정 순장(찬양공동체)

순장학교에서 두 가지를 배웠다. 첫째, 순장은 순원들을 돌보고 격려하고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물론 이전에도 알고 있었는데, 순원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돌보고 격려하고 사랑해야 하는지를 알게 된 것이 참 감사하다. 교회에서 순원 개개인이 목사님 말씀과 교회 사역의 참여, 성도와의 교제를 통해서 치유를 경험한다. 순은 치유가 발생하고 일어나는 가장 직접적인 공동체이자 나눔의 공동체여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언제나 우리 순이 세상에 지친 순원들이 순전하게 어려움을 털어놓고, 고민을 나누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는 현상이 되기를 바라고 기도한다. 이를 위해서 순장은 늘 깨어서 기도해야 하고, 순원들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중보기도하며, 순원들이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가 되도록 이끌어야 할 것이다.
둘째, 순이 단순히 나눔의 공동체, 치유의 공동체에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배웠다. 온누리교회의 사명이 선교인 것을 상기하면 순은 전도하는 공동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여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우리끼리

두 가지 배움

좋아하고 교제하고 만나서 반갑고 친하게 지내는 폐쇄적인 공동체에서 그쳐서는 안 된다.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함께 전도하는 공동체여야 한다. 열린 순예배와 같은 이벤트를 통해서 주변에 믿지 않는 이웃을 초대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순원들과 함께 항상 주변에 믿지 않는 이웃에게 관심을 가지고, 누가 초대의 대상이 될지를 고민해야 한다는 강의가 나에게 큰 충격을 줬다.
순장학교 테이블터넌트와 같은 좋은 믿음의 선배를 알게 되어서 좋았다. 사랑스럽고 신실하고 진실하며 순전한 믿음을 가진 조원들과 연결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들의 삶의 한 자락을 보면서 내가 젊었을 때 저렇게 귀한 믿음을 가졌었는지 반성했다. 순수한 그들의 믿음을 보면서 나이가 나보다 많이 어리지만 배우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셔서 감사한다. 제자들을 사랑하셨던 예수님의 마음 한 자락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다. 내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기를 소망한다.

장로칼럼

다시 시작되는 아웃리치에서

홍범식 장로
(충청로공동체)

코로나19로 3년 동안 중단됐던 여름 아웃리치가 시작된다. 이 소식을 듣고 지난 3여 년 선교지에서 고군분투하신 선교사님들이 생각나 마음이 찢해진다. 또 한편으로는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신음하고 있을 때 선교지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한 선교사님들께 감사와 응원을 보내고 싶었다.

몇 년 전 일이다. 여름 아웃리치가 한창이었는데 인도네시아 롬복에서 지진이 났다. 온누리교회에서 파송한 A 선교사님이 롬복에서 신학교와 교회사역을 하고 있었다. 지진이 났다는 소식을 듣고 급하게 선교사님께 연락을 드렸다. A 선교사님께서는 지진을 잘 피했고, 여진을 우려해 공터에 텐트를 치고 대기 중이라고 하셨다. 나는 A 선교사님께 서둘러 지역을 떠날 것을 권면했다.

“선교사님! 지진이 나면 치안이 무너집니다. 우선 자리를 피하고 지역이 안정되면 다시 돌아오십시오.”

선교사님께서 대뜸 화를 내셨다.

“아니 홍 장로님, 온누리교회 장로님 맞으세요? 지금 현지인들한테 그 어느 때보다 도움이 필요한데 이곳을 떠나라니요?”

A 선교사님은 현지인들을 잘 섬겼고, 롬복에 아웃리치를 왔다가 지진을 만나 당황에 빠진 파워웨이브 학생들도 잘 돌봐서 한국으로 안전하게 보낼 수 있었다. 선교 현장에서는 좋은 일과 나쁜 일이 따로 없다. 성경 말씀대로 행할 수 있다면 좋은 일이고, 그렇지 못하더라도 다시 좋은 때가 오기 마련이다.

아웃리치는 성도 개인에게 선교의 시작이다. 선교를 잘 몰랐던 성도들이 선교지를 방문

해서 선교 현장을 몸으로 느끼고 선교의 첫발을 떼는 귀한 순간이다. 아웃리치를 가면 사역에 몰입하기 쉽다. 사역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은 선교지를 눈에 담아야 한다. 그리고 마음에 품어야 한다. 눈에 담고 마음에 품으면 자연스럽게 선교지를 위해 기도하게 된다. 아웃리치가 끝나도 선교지 소식이 궁금해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고민하게 된다. 선교지를 마음에 품은 성도가 한 명 두 명 모여 선교지와 선교사들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다 보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 아웃리치에서 선교지를 마음에 품으면 ‘재미없었다’, ‘불편했다’ 등의 이유로 매년 아웃리치 장소를 바꾸지 않게 된다. 한 공동체가 같은 마음으로 수년 수십 년 한 지역으로 아웃리치를 가는 은혜가 생긴다. 수년 동안 아웃리치를 다녀온 성도들이 선교지를 마음에 품었고, 오랜 시간 한 지역을 섬기며 하나님 나라 확장을 이뤄갔다. 선교사님들은 공동체가 선교할 수 있도록 귀한 다리가 되어주셨다.

아직 팬데믹이 끝난 게 아니라서 각 공동체나 선교사님들이 고민이 많을 것 같다. 인원 제한도 수시로 변경되고 있고, 지역마다 코로나19 방역지침이 수시로 바뀌어서 아웃리치 출발하기 전부터 상당한 피로도가 쌓이고 있다. 사정이 이런 만큼 아웃리치는 사역보다는 심방에 중점을 둘 것을 추천하고 싶다. 아웃리치 인원도 교제하고 신앙 나누기에 딱 좋지 아니한가. 선교사님들께 좋은 음식을 대접해드리고, 그간 어떻게 지내셨는지 나눠보면 큰 은혜가 있을 것이다. 여유가 있다면 평소 방문하지 못한 선교지나 타 교회나 선교단체에서 파송한 선교사님들도 섬겨보자. 라면이라도 한 상자 나눠드리면서 고생이 많으셨다고 인사하면 선교지에 더 큰 은혜가 있을 것이다. 다시 시작되는 아웃리치에 힘입어 사도행전 29장을 써 내려가는 나와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기도한다.

권사칼럼

팔죽을 타고 온 사랑

조은미 권사
(강동온누리교회)

가까이 살면서 뭐가 그리 바쁜지 서로 얼굴 본지가 한참 지난 옛 직장 후배가 오랜만에 집에 오겠다고 연락이 왔다. 사랑이 많아 푸근하고, 항상 옆 사람을 배려하고 챙기는 마음이 따뜻한 그녀와는 만날 때마다 행복이 솟는다. 같은 사람을 만나도 에너지가 솟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늘 불평과 불만이 가득 차 웃음과 너그러움이 없고 남 비평하고 꼬투리 잡기 좋아하는 갈고리 같은 사람은 만나고 나면 그 기운이 전염되는지 기가 빠지고, 덩달아 우울해지고 피곤해져 피하고 싶어진다. 좋은 사람 만나서 하하호호 하기도 짧은 시간에 스트레스받는 사람까지 만나 시간 축내고 우울하게 살아야 할 까닭이 있을까? 나는 누군가에게 피하고 싶은 상대는 아닌지, 안 보면 궁금하고, 보고 싶고 전화라도 걸어 안부를 묻고 싶은 사람인지 돌아본다. 모쪼록 내가 먼저 늘 얼굴에 미소를 띠고 상대의 가슴에 따뜻함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하리라.

설레는 마음으로 후배를 기다렸다. 초인종 누르는 소리에 마주 나가 반겼다. 오랜만에 반가운 해후를 했다. 그녀의 손에는 아직 온기가 식지 않은 따끈한 팔죽과 시원한 상추 물김치가 들려있었다. 나는 워낙 팔죽을 좋아한다. 팔죽에 유난히 어린 시절 행복했던 향수가 남아 있다. 외할머니께서 장작불 지펴가며 설설 끓는 가마솥에 구슬땀 흘리시며 팔을 푹 고아 으깬 진국으로 주어 주셨던 그 팔죽이 얼마나 맛나던지! 팔죽을 먹을 때마다 행복했던 그 기억을 잊을 수가 없다. 늘 그 맛을 그리워했는데 어디서도 그런 깊은 맛이 나는 팔죽을 먹어보지 못해 추억 속의 맛으로만 남아 있다.

나를 생각해 들고 온 후배의 정성이 고맙고, 넘치게 받는 사랑에 행복했다. 팔죽을 한 숟입에 물었더니 외할머니 손맛이 느껴지는 깊은 맛에 탄성이 나왔다. 허끝에 오래 남는 팔의 진하고 고소한 뒷맛에서 옛날 그 맛이 느껴졌다. 그 순간 그리움이 왈칵 솟았다. 어려서 외가댁에서 많이 자란 탓에 엄마만큼이나 외할머니에 대한 추억이 각별하다. 향수를 자극하는 그 맛에 외할머니를 소환하고 행복해했다. 너무 맛나게 먹는 내 모습에 그녀도 기쁨으로 환하게 웃었다. 금방 점심 물린 끝이라 배가 불러 더 들어갈 틈이 없는데도 팔죽 한 공기를 맛나게 비우고 그래도 아쉬워서 숟가락이 놓아지지 않았다. 상추 물김치도 한창 맛이 들어 시원하고 맛났다.

환갑이 넘은 나이에도 영어 공부에 열중하고, 플루트와 오카리나, 요가에 한 번 손대었다 하면 쇠 힘줄 마냥 끈질기게 잡고 늘어지는 성실함으로 전문가 수준에 이르는 그녀를 보면 부럽기도 하다. 나는 시작은 잘하는데 뭐든 오래 붙잡고 늘어지는 끈기가 부족해서 이것저것 배우기는 많이 했는데 뭐 하나 내세울 게 없는 걸 보면 뭐든 한 우물을 파는 진득함이 있어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평범한 생활 철학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접시꽃 씨를 나눠주며 내년 여름에 그녀의 정원에 내 마음이 담긴 접시꽃들이 활짝 피어나기를 기대한다. 사랑하는 이가 가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모른다. 늘 사랑하는 사람으로 울타리 쳐주시고, 외롭지 않게 보호해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하다.

배우고 돌아서는 가슴이 파사로웠다. 나도 누군가에게 그런 파스함으로 서고 있나 돌아봤다. 사랑해 본 적이 있는 사람은 안다. 사랑하며 사는 일이 서로를 얼마나 파스하고 행복하게 해주는지를 말이다. 팔죽을 타고 온 사랑으로 오늘도 푸근하게 젖어 드는 행복감에 감사하며 하루를 접는다.

신앙에세이

최다니엘 선교사
(안산M센터)

기도카드 만드는 일을 계속 미루다가 이번에 중동에 나가는 것을 계기로 만들었다. 함께 사역하는 온누리M미션 팀장님께서 디자인을 도와주셨고, 기도제목 하나하나 생각하며 적어나갔다. 마지막까지 기도하며 생각한 것은 말씀 한 구절이었다. 어떤 말씀이 선교에 헌신하고자 하는 우리 가족에게 주시는 말씀인지, 함께 기도해주시는 분들과 나눌 수 있는 말씀인지를 성경을 보면서 찾기도 하고, 기도 중에 응답이 있기를 바라기도 했다. 그러던 중에 주님이 주신 말씀이 이사야 40장 1절이다.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의 하

나님께서 말씀하신다”(사 40:1).

하나님께 감사하며 위로자의 삶을 살기를 기도하고 기도카드에 말씀을 넣었다. 좋은 말씀이고, 의미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전부였다. 하나님께서 머리에만 머무는 말씀을 내 마음으로 내려오게 하셨다.

얼마 전 장인이런이 돌아가셨다. 갑작스러운 일이었다. 슬픔과 황망함 속에 어찌할 바를 모를 때 함께 사역하는 분들과 공동체가 하나하나 도움을 주셨다. 각자 바쁜 삶 속에서도 찾아와 예배로 함께 해 주셨고, 위로를 건네주셨다. 해야 할 일들을 함께 챙겨 주셨다. 깊은 감사를 느꼈고 큰 위로가 되었다. 개인이 개인에게 전하는 위로를 넘어 공동체 안에서의 위로를 경험했다. 그렇다. 하나님은 우리가 떠나기 전에 그들에게 전해야 할 위로를 미리 경험하게 하셨다. 그리고 교회에 대해, 그리스도의 공동체에 대해 깊이 묵상할 기회를 주셨다.

그리스도의 공동체

온누리M미션에는 15개 언어 예배 공동체가 있다. 서로 문화도, 언어도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누리교회 안에서 함께 모였다. 우리가 M미션을 소개할 때 자주 인용하는 것이 사도행전의 안디옥교회다. 다양한 민족이 모인 교회이지만 사람들은 그들에게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았고, 처음으로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 그들의 정체성이 자기 문화와 민족에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에게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정체성으로 세상과 다른 모습을 살았다. 세상과 다르기에 겪을 수밖에 없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의 몸으로, 예수 안에서 서로를 지탱하는 위로와 나눔이 있었다. 바로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있다.

온누리M센터의 외국인들만이 이주민이고, 나그네일까? 요즘 세상은 기쁨을 나누면 질투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약점이 되니까 아무것

도 나누지 말라고 한다. 점점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져 간다. 이런 세상과 다른 가치관으로 살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일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로 세워져 나가는 우리는 서로 깊이 연결된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점차 파편화되어가는 세상에서 우리는 더욱 예수님의 몸 된 교회로 하나 돼야 한다. 우리 모두가 서로의 등대가 되고, 세상의 소망과 위로가 되기를 기도한다.

“구원은 개인 구원”이라는 말을 어릴 때 들었다.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한 말 같다. 구원의 믿음은 각자가 갖고 있지만, 믿음을 가진 삶의 모습은 개인이 아닌 관계에 있지 않을까? 구원의 믿음조차 관계 속에서 얻는 것 아닐까? 주님의 온전한 관계 속으로 초청받은 우리가 다른 이들을 그 관계 속으로 초청하는 것, 요한복음 17장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한다.



주일강단

〈3면에 이어〉

복음과 하나님의 진노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은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어리석은 마음으로 어두워집니다. 하나님을 알 만한 분명한 계시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분을 모두 이해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개미가 인간 세계를 이해할 수 없듯이, 인간은 하나님의 세계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차원이 다른 분입니다. 광대하시며, 영원하신 분입니다. 시간 속에 살아가는 존재가 어떻게 영원하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육신을 입은 자가 어떻게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를 알 수 있겠습니까? 모릅니다. 하나님을 전부 알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분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분께 영광을 올려 드리는 것입니다. 그분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감사하지 않을 때 우리 마음의 상태가 허망한 생각에 사로잡히고, 어리석은 생각으로 어두워집니다. 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까? 왜 그것이 명철입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예배하고, 감사할 때 우리의 지성과 판단력이 최상의 상태를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영혼이 밝아집니다. 분별력이 생기고, 지혜와 명철이 생깁니다. 믿음이란 우리 눈으로 볼 수 없고, 모두 이해할 수 없고, 초월해 있고, 모두 알 수 없는 영역에 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다 아는 것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광대하시고, 영원하시고, 완전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영광스럽게 하고, 그분께 마땅히 감사해야 합니다. 이 마음이 없을 때 어두운 마음이 되고, 그 어두운 마음이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우상을 만들고 숭배합니다.

“그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지만 미련하게 돼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이나 새나 짐승이나 기어 다니는 동물의 우상으로 바꾸었습니다”(22~23절).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형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 나면 우상이 반드시 출현

합니다. 우상을 왜 만듭니까? 우상이 존재해서가 아닙니다. 우상을 만들어 놓고 보니 자신이 하나님이 되는 느낌 때문에 만드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결코 중립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속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경외하지 않으면 중립 상태라고 보는데 중립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반드시 그 어떤 것을 섬기고 있습니다. 팀 켈러 목사가 여기에 대해 중요한 문장을 남겼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종교적으로 중립적인 진공상태가 아니다. 무엇인가를 숭배해야 한다. 우리는 창조주를 경배하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분을 거부하면 그 대신 다른 무엇인가를 경배하게 되어있다. 우리는 목적이 있는 피조물이기에 무엇인가를 위해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지 아니면 우상을 경배하고 있는지 둘 중 하나입니다. 중립적인 진공상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으면 우리의 생각이 허망해지고, 어두워지며, 결국 우상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성경에 보면 세 가지 채널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 날에 궁극적으로 폭발하듯 나타나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것입니다. 매 순간 우리 삶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통해 재앙으로 나타나는 진노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진노의 형태를 2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버려 두심의 심판’입니다. 하나님 진노의 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해 심판하시면 우리를 더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계속 죄를 지어도 아무런 일이 없다면 하나님의 내버려두심 심판입니다. 그 죄 가운데 사는 것 자체가 고통이요,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세 가지 내버려 두심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마음의 정욕대로 살도록 더러움에 내버려 두시니 그들은 서로의 몸을 욕되게 했습니다”(24절). “하나님께서서는 이 때문에 그들을 수치스러운 정욕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여자들은 남자와의 정상적인 관계를 비정상적인 관계로 바꾸고 남자들도 마찬가지로 여자와

의 정상적인 관계를 버리고 서로 정욕으로 불타올랐습니다. 그들은 같은 남자끼리 부끄러운 일을 행했고 이런 타락한 행위로 인해 그들 자신이 마땅한 징벌을 받았습니다”(26, 27절). “더구나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하찮게 여기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타락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셔서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28절).

‘내버려 두셨다’는 말이 세 번 반복 됩니다. 부끄러운 정욕대로, 수치스러운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악을 행하게 하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 진노의 한 모습입니다. 인간이 악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그것을 막아주시는 것이 은혜인데, 막지 않고 내버려 두셨다면 그 자체가 징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와 악을 행할 때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시고, 그 길을 치시고, 그 길을 벌하시는 것이 더 큰 은혜입니다. 악을 행하더라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내버려 두심의 심판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의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타락한 마음을 내버려 두시면 성적인 불결에 처하게 되고, 동성애에 처하게 되고, 타락하고 상실한 마음에 처하게 됩니다.

우리가 두려워야 할 것은 ‘하나님의 진노’라는 단어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읽고 묵상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의 진노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불의와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간 안에 있는 타락한 마음으로 인하여 온갖 죄악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불의, 악행, 탐욕, 악의, 질투, 살인, 다툼, 악독, 분쟁, 비방, 능욕, 교만, 자랑, 부모를 거역, 우매함, 배역함, 무정함, 무자비 등입니다. 악은 새로운 죄를 계속 만들어내고, 악을 행하는 법을 계속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 존재임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죄를 미워하시고 진노를 쏟아 부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앞에서야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받게 됩니다. 구원의 감격은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던 존재라는 것을 깊이 깨닫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앞에 있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불의로 진리를 막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를 밝히 받아들이기를 축원합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세상의 소금과 빛 ‘온누리복지재단’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 돕는 ‘온누리청소년센터’



김형근 센터장
(온누리청소년센터)

운영을 위해 1999년 온누리복지재단 설립에 맞춰 이관했다.

온누리복지재단은 다양한 복지대상 중에서 ‘청소년’에 주목했다. 2002년 11월에는 군포시 산본동에서 ‘하나로군포시청소년쉼터’라는 이름으로 개원했다. 2005년에는 청소년위원회로부터 ‘중장기 청소년쉼터 및 운영사업’으로 지정됐다. 2012년에는 학업중단 위기

온누리청소년센터는 온누리교회 초기 공화사역지 ‘섬김과 나눔의 집 하나로’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1991년 당시 사회선교위원회에서 군포 공단지역을 선정하고 다양한 공화사역을 해오다 전문화된 복지사업

부터 ‘하나로꿈학교’(장기위탁 대안교육기관)로 매년 지정받아 운영하고 있고, 2014년에는 ‘꿈의집 지역아동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다. 2019년부터는 쉼터 퇴소 이후 원가정으로 돌아갈 수 없는 가정 밖 청소년들의 건강한 자립을 위해 경기도로부터 ‘경기남부청소년자립지원관’을 수탁받아 지원하고 있다. 아동부터 후기청소년(20세~24세)에 이르기까지 100여 명의 아동·청소년들이 함께 꿈을 꾸고 성장하는 센터로 지역사회에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분은 고아와 과부의 사정을 변호하시고 이방 사람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며 사랑하시는 분이요”(신 10:18). 가정해체와 아동학대 등 다양한 사정으로 가정 밖으로 나온 청소년들은 고아와 같은 처지다. 스스로 홀로서기 해야 한다.

사역 초기에 힘이 들어서 포기하고 싶었을 때가 있었다. 그때 하나님이 친히 사회에서나 학교에서 주목하지 않는 청소년들의 아파

버지가 되어 주시겠다고, 이 아이들을 사용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보여 주셨다. 사실 아이들의 당시 상황만 놓고 보면 정말 기대할 수 없었지만, 그 약속을 붙잡고 힘든 고비들을 넘어 지금까지 청소년 현장을 지킬 수 있었다.

그때 10대 청소년들이 어느덧 30대 중후반 성인이 되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모습을 보고 있다. 가난한 혼인 잔치에서 물 떠온 종들만이 예수님의 기적을 알았듯이, 하나님이 아이들의 삶을 만져 가시는 작은 기적을 곁에서 볼 수 있는 축복을 누리고 있다. 온누리청소년센터를 이용했던 모든 청소년의 상황을 보고 들을 수는 없지만, 주어진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다면 하나님의 계획대로만 저가되고 사용하시리라는 믿음이 있다. 나중에 천국에 가면 작은 기적의 이야기를 모두 들을 수 있지 않을까?

2002년 하나로군포시청소년쉼터로 시작한

온누리청소년센터가 올해로 20주년이 된다. 개원 초기부터 센터가 위치한 경기A공동체를 비롯해 양재 이웃사랑팀, 여성사역팀 등 여러 공동체와 사역팀에서 다양한 형태로 봉사

특히 살던 집을 팔아 온누리청소년센터 재건축을 지원해 준 이춘애 권사님은 준공 이후에도 매일 중보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이 지면을 빌려 기도

설레는 스무 살 되는 온누리청소년센터가 올해 조금 더 성숙하고 성장하는 모습으로 교회와 지역사회에서 좋은 소문이 나도록 노력할 것이다. 가정 밖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자립을 함께

문의 : 031-399-7997

서빙고

02. 793. 9686

토요주일예배

1부 오전 9:00 본당 2부 오전 11:00 본당
3부 오후 1:00 본당 4부 오후 3:00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오전 6:50 본당
2부 오전 9:00 본당, 비전홀
3부 오전 11:30 본당, 비전홀, 두란노홀
4부 오후 1:50 본당, 비전홀
5부 오후 4시 비전홀
6부 (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시 본당
7부 9시에 뜨는 별 오후 9시 본당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5:20 본당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6:30 본당

월요 어노인팅집회

매주 월요일 오후 7:20 비전홀

화요Holy Impact 집회

매주 화요일 오후 7:30 본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본당

수요목양예배

매주 수요일 오후 7:30 본당

목요경배와찬양

매주 목요일 오후 6:30 본당

목요선교집회

매주 목요일 오후 7:30 비전홀

금요회복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7:20 본당

금요철야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9:50 본당

한마음정신회복예배

담당: 최용준 목사

매 주일 오전 11:20 선교관 101호

문의: 임선양 팀장(010-9782-7733)

S브릿지 예배

내용: 만33~44세 미혼 청년예배

주일 오후 1:30 두란노홀

문의: 김우용 대표(010-5395-2319)

장애인 공동체 누리사랑부예배

매 주일 오전 11: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김중수 팀장(010-7303-1603)

아베스람예배(사별자모임)

매주 화요일 오후 6:00~8:30 선교관 403호

문의: 정종희 팀장(010-9391-7997)

문화 미디어 중보기도예배

매주 화요일 오후 8:00~9:30 콘서트를

문의: 전도본부(02-3215-3214)

사랑부예배

대상: 발달장애청소년

시간: 매주일 오전 9: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김종영 목사(010-2890-1707)

예수사랑부예배(발달장애 청장년공동체)

매 주일 오전 11:30 서빙고 한동홀

문의: 이강현 팀장(010-5594-9206)

일본어예배

매 주일 오후 2:00 선교관 한동홀

문의: 김상호(010-9349-5631)

일본어예배 수요기도회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선교관 302호

영어예배

매 주일 오후 4:00 경찬홀

문의: 02-3215-3685

중국어예배

매 주일 13:30 경찬홀

문의: 김성철 집사(010-3660-7135)

온누리M미션 외국어예배

서빙고(02-3215-3730)

몽골어 14:00 선교관 101호, Zoom / 러시아어

13:00 선교관 301호, Youtube / 네팔어 주일 14:00

선교관 202호, 매월 첫주 군포 셀터, Zoom / 아랍어

주일 14:00 본관 B102, Zoom / 페르시아어 주일

11:00 Acts29 Hall, Zoom

안산M센터(031-491-9650)

몽골어 주일 10:30 Joy 201, Facebook / 러시아어

주일 10:00 Onnuri Hall, Youtube, Facebook / 네

팔어 주일 10:00 Peace 303, Zoom / 캄보디아어 주

일 11:00 Peace 302, Facebook / 미얀마어 주일

10:30 Joy 202, Zoom / 필리핀, 파갈록어 주일 13:30

Onnuri Hall, Zoom / 태국어 주일 14:00 Manna

hall, Youtube / 스리랑카어 주일 11:00 Peace 304,

Youtube, Zoom / 베트남어 주일 예배 11:00 Peace

301, Facebook, Youtube, Zoom / 중국어 청년 주일

12:30 Manna hall, 다문화 꿈땅 주일 11:00

Startree, Zoom / 다문화 에코 주일 11:00, 14:00

Peace 305, Zoom / 다문화 에코 주일 11:00, 14:00

Dream Kids, Zoom / 다문화 대형 주일 12:00

Manna hall / 인도네시아어 주일 16:00 스타트리

협동조합, Zoom / 우즈베크스탄어 주일 14:00

Peace 304, Youtube / 아랍어 11:00 Library / 열방

예배 9:00, 11:00 4F Manna hall, Youtube

김포M센터(010-7762-7718)

캄보디아어 주일 11:00 703호, Zoom / 러시아어

14:00 703호, Facebook / 미얀마어 14:00 706호,

Zoom / 파위웨이트 14:00 705호, Zoom / 꿈땅

11:00 706호, Zoom

화성M센터(070-8671-8091)

열방예배 주일 11:00 301호, Zoom / 네팔어 11:00 2

센터 202호, Zoom, Facebook

평택M센터(031-651-1702)

열방예배 13:30 4층 OGA / 몽골어 주일 11:00

Love Hall, Zoom / 페르시아어 15:00 Love Hall,

Zoom / 베트남어 13:30 4층 OGA 차세대 11:00 차

세대예배실, Zoom(14:00) / 열방청년예배 13:30 4

층 OGA, Zoom

남양주M센터(010-3937-3927)

열방예배(한국어) 주일 09:30 301호 / 힌디어 토요

일 19:30 301호, Zoom / 네팔어 주일 15:00 301호,

messenger group, Facebook, Zoom / 차세대 11:00

302호

DRS 이혼자 정기예배

일시: 매주 토 15:30~19:00 신관401호

문의: 김재영 집사(010-2539-5665)

나지원 팀장(010-3489-2080)

이스라엘 중보모임(살롬이스라엘)

일시: 매주 토 오전 8시~10시

장소: 서빙고 시온홀

문의: 010-8550-7930

차세대사역본부 목요어머니기도회(6월

개강)

일시: 매주 목요일, 오전 10:30~12:00

장소: 온라인(Zoom)

문의: 서빙고(02-3215-3523)

양재(02-570-7553)

Acts29비전빌리지 서를 운행

시간채플예배시간: 11:30~12:30

서빙고 출발 9:30, 양재 출발 10:10

비전빌리지(양지) 출발 15:00

마리아행전, 무릎선교기도 연합기도

모임

일시: 매주 목요일 오전 9:45~12:30

장소: 온라인(Zoom)

문의: 여성사역 02-3215-3227

한터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있으신 분들

을 위한 공동체

일시: 매 주일 오전 10:00

장소: 서울 강서구 양천로 504 명문빌딩 7층

문의: 02-3463-9686

CMN 미용스쿨 초급반 모집

내용: 가위 사용법, 기초 컷팅, 기판파마

일시: 6월 3일~28일(매주 화, 금), 양재 오전

반 오전 10~12시 양재 JDS홀, 서빙고 오후

반 오후 2시~4시 서빙고 B102호

수강료: 8만 원(간식 제공)

재료비: 20만 원(가위 세트, 파마 도구 일체,

컷트보 등) ※재료가 있는 분은 제외

신청: 문자 또는 아이스쿨

문의: 정선 팀장(010-9034-5369)

평택온누리M센터 차세대 교사 모집

예배 및 소그룹: 11:00~13:30

대상: 초등 4학년~중학생

위치: 1호선 평택역 2번 출구에서 도보 3분

거리

문의: 김연경 선교사(010-3299-1712)

평택온누리M센터 O.G.A. 봉사자 모집

대상: 초, 중, 고, 대학교 입학준비하는

중도입국 청소년

모집: 한국어, 미술, 악기, 미술치료, 음악치

료 수업

시간: 오전 10:00~12:00, 오후 1:00~3:00 /

화~금(주 1~2회 수업)

문의: 김연경 선교사(010-3299-1712)

큐티스쿨-서빙고

일시: 7월 3일~8월 13일

장소: 온라인(매 주일 강의 링크 공지)

신청: 아이스쿨(7월 2일까지)

문의: 010-3766-9881(문자)

양재

02. 573. 9686

토요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사랑홀

일요주일예배(사랑홀, 드림홀)

1부 오전 6:50 2부 오전 9:00

3부(열린예배) 11:30 4부 오후 1:50

5부(대학청년부 여호수아) 오후 4:00

6부(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00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5:20 사랑홀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6:30 기쁨홀

새신자를 위한 열린예배

주일 오후 7:00 사랑홀

화요성령집회

매주 화 오후 7:30 기쁨홀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사랑홀

수요저녁예배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사랑홀

금요심야예배

매주 금요일 10:00 사랑홀

브릿지33+ 예배

33세~44세 싱글 남녀를 위한 공동체

매주 주일 오후 2:30, 하용조 기념홀

문의: 김효성 팀장(010-4711-1183)

한마음 정신 회복 예배 안내

매주 주일 오전 11:30 강의동 304호

Point5 예배

주일 오전 11:30 하용조 기념홀

차세대예배(Point5 영어와 한국

어로 드리는 예배)

Jesus Toddler 24~48개월(주기철체플실)

Jesus Rock 5세~초등1(충성홀 9:00)

Jesus Crew 초등2~초등6(JDS홀 9:00)

Jesus Vine 중등1~중등3(비전홀A 9:00)

도곡교육관 주일 성인예배

도곡1관 사랑홀(숙명여고 대강당)

1부 오전 9시, 2부 오전 11시 30분,

3부 오후 1시 50분

도곡 차세대 9:00 예배

영아부: 교육관 꿈터(B동 1층)

유치부: 교육관 꿈아이홀(B동 1층)

유년부: 교육관 충성홀(B동 2층)

초등부: 교육관 화평홀(B동 2층)

중등부: 교육관 온유홀(A동 2층)

고등부: 교육관 기쁨홀(A동 3층)

도곡 차세대 11:30 예배

예꿈2부: 교육관 꿈터(B동 1층)

꿈땅2부: 교육관 충성홀(B동 2층)

도곡 차세대 14:00 예배

예꿈3부: 교육관 꿈아이홀(B동 1층)

꿈땅3부: 교육관 충성홀(B동 2층)

도곡교육관 주일 10:30 예배(영어)

Adult Service: 도곡2관(중대부고 강당)

도곡교육관 영어 차세대예배

Youth Service 11:00 도곡1교육관 기쁨홀

Kidzone 10:30 도곡2교육관 기쁨홀

도곡교육관 주일 오후 2:00 예배(청년부)

갈렙청년부 도곡1관 기쁨홀

사랑부 예배

주일 오전 9:00(발달장애인 6세~18세),

11:20(발달장애인 대학청년) 비전홀B

문의: 김병철 목사(010-9289-3927)

프랑스어 예배

설교: Gerard Tynevez

일시: 주일 오후 2:00 양재 강의동 304호

문의: 010-8483-6210 *통역 지원

스페인어예배

설교: Cristian Neira

일시: 주일 오후 2:00 도곡교육관 온유홀

문의: 010-4924-2703

하나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 있는 분

들을 위한 공동체

매주일 14:00 드림홀

마리아행전 주중기도모임

대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여성

일시: 매주 수요일 13시~14시 30분

장소: 양재 화평홀

문의: 02-570-7277

양재 대형어머니기도모임

일시: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리빙랜드

문의: 김은지 권사(010-3285-1726)

온누리 온라인커뮤니티 모집

대상: 공동체 참여가 어려운 온누리

교회 성도

신청: 온누리교회 홈페이지

문의: 02-3215-3214

온누리세라핌합창단 단원 모집

담당: 박사무엘 목사

지휘: 최영은 성가사

모집: 초 1~중 1

연습: 매주 토요일 오후 2~4시

문의: 010-9927-4224

제82회 성령수련회

일시: 6월 18일 오전 9시~오후 5시

장소: Acts29 비전빌리지

접수: 아이스쿨

문의: 황보은선 권사(010-7120-5221)

두란노해외선교회 간사 모집

업무: 선교지 행정지원(중동/아프리카 지역) 1명

지역: 양지Acts29비전빌리지 3층(숙

소 협의가능)

지원: 6월 24일까지

문의: 070-4464-8102

부 천

032. 322. 9686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 2부 오전 11:30 / 3부

이가연PD의 하이퍼출장리즘

어디든 가연

노크 채널 신규 여행 콘텐츠



브라질 오지로 떠난 노크 이가연 PD의
좌충우돌 해외선교 브이로그

 YouTube

KNOCK노크

검색

매주 토요일 오후 7시 업로드

